후원회 소식

통권 213호 | 발행일 2009. 7. 20 | 발행인 김호현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용산참사 180일!
책임지지않는 잔인한 정권!

▲ 20일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시신을 서울 시청광장으로 옮기겠다고 나서자 경찰들이 가로막고 나섰다. -통일뉴스-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통일원로를 찾아서 · 신현칠 선생님 박소연 • 9 / 회원마당 · 김현수 회원 · 모성용 • 13 / 감옥에서 온 편지 윤기진 외 • 15/ 신행기 김양희 • 18 / 기고 · 이 시대의 아픔을 권오헌 • 20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명단 • 21 / 이런일이 있었어요 • 23 / 재정보고 • 41 / 회비를 내주신분들 • 4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o@gmail.com

자주통일운동을 법정에 세운 냉전공안논리

- 보안법 폐지, 통일단체 탄압 중단, 통일인사 석방을 촉구한다 -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진보연대 정책국장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이규재 의장에게만), 특수 잠입 · 탈출, 회합 · 통신, 찬양 · 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보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 보안수사대는 지난 5월 7일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와 지역연합의 전 · 현직 지도간부와 활동가, 지방통일운동단체 실무책임자 등 16명의 집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연합, 경인연합, 광주 · 전남 연합과 춘천 · 원주 청년회, 청주 통일청년회, 6 · 15 충북 본부, 6 · 15 경기본부 사무실 등 9곳을 같은 시간에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같은 압수수색과 함께 위 이규재 의장 등 3명과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 6 · 15 남측위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과 오순완 사무국장 등 6명을 체포 국정원으로 강제연행했고, 범민련 경인연합 홍안나 전 사무국장, 범민련 본부 오미나 전 편집국장, 범민련 광주 · 전남 연합 박용식 사무국장, 강원 · 원주 청년회 김창환, 장승완 전회장 등 5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같은 범민련에 대한 전국 규모의 압수수색과 주요 간부 무더기 체포, 출두요구서 발부 등은 1995년 범민련 남측 본부가 결성된 해 강희남 의장 등 본부와 지역연합 지도간부 29명을 구속기소한 대탄압 이래 14년 만에 재연된 일로 1995년 당시 김영삼 정권과 오늘 이명박 정권이 똑같이 반북대결정책을 벌이고 있는 공통점 속에서 자행된 범민련에 대한 표적탄압 성격을 띠고 있다.

압수수색과 강제연행 과정 또한 전격적이고 살벌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자행되었다. 마치 무슨 간첩 사건이나 정부를 뒤엎는 지하조직 사건이라도 되는 듯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됐고, 범민련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만도 수사관 40여명이 100여명의 경찰 경호를 받으며 범민련 성원의 사무실 출입을 철통 봉쇄한 채 무려 5시간에 걸쳐 샅샅이 뒤지는 등 범민련 활동을 아예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최근 정부비판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민주주의 말살 행패와 함께 국가보안법 칼날을 통한 또 다른 공안정국 조성이기도 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도 가족, 친지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 제한하여 피의자 인권침해와 함께 변호인 접견권을 유린했다. 바로 경찰서 유치장 구금이 아닌 연행된 날부터 곧 바로 서울 구치소에 구금 접견시간을 주지 않아, 어떠한 피의자도 조사과정에서 변호인과 외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변호인 접견권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국정원은 10일, 검찰에서는 20일 등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무려 50일에 가까운 밀실수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민족대단결과 자주평화통일이란 범민련이 지향하고 목표로 한 통일운동을 마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한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범죄로 단정, 언론에 '범죄사실'로 유포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고 여

론재판을 유도하며 재판부에 압박을 가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며 언론에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북한의 지침을 전달받아 이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연락창구(HUB)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전파하고 남북교류가 확대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 교류를 가장해 수시로 북한공작원과 비밀접촉하고,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결성 등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이를 실행하였으며,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면서 북한 핵실험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대변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는 전혀 법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범민련의 자주통일운동을 '범죄'로 단정 공소를 제기한 데는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사건들처럼 이북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로 이북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상투적 규정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부터 한결같이 따라붙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양식이면서 존립명분이기도 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이러한 전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통일운동도 여전히 탄압의 대상이 될 터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변화발전하게 된다. 바위가 모래가 되고, 물이 기체가 되듯 자연현상과 함께 사회현상도 사람의 생각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법과 제도도 사회발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이 언제까지나 두 쪽이 되어 대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잘 알려진 7.4 남북공동성명(1972. 7.4)과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10.4 평화번영선언(2007.10.4)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사이의 합의 는 불신과 대결 시대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주통일시대를 열어제끼는 역사적 사변이기도 했다. 당연히 이남도 이북도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고 서로가 주장하듯이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은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적어도 7.4 공동성명 이후부터의 남북관계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의 '전제'는 원천무효화 되었고, 국가보안법도 존립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것은 선언상의 이상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발전시켜온 남북관계의 현상이 말해주고 있다. 오늘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흡수통일 책동으로 통일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국면을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정권은 유한하고 민족의 지향과 염원은 무한한 것이다. 프랑스혁명 후의 반동시대, 4.19 혁명 뒤의 5.16 반동처럼, 시대착오적인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은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민련 피의자들에 대한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부당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이규재 의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했다'는 혐의이다.

여기서 밝혀야하는 것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북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활동해 왔는가와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 이북의 주장을 동조한 것이며 남측 본부가 이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 인가와 남측 본부 활동

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민련 남측 본부가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1992년 8월 18일, 그리고 남측본부를 정식출범한 이후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이북이 반국가 단체이고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임의규정과 그러한 이북의 활동을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냉전, 공안 논리의 산물이었다.

범민련은 검찰이 말한 이북의 통일전선 형성 요구에 따른 남과 해외의 이북 추종세력을 결집시켜 출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988년 8월 1일 이남의 진보, 보수를 망라한 각계 인사 101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 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남북, 해외동포들이 범민족 대회에서 조국통일 방안과 실천과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같은 해 12월 7일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 제안을 지지하면서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안하였다. 그 뒤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남·북·해외 예비 실무회담에 가려던 남측대표단이 공안당국의 원천봉쇄와 전원 연행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90년 8월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제1차 범민족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의 남, 북, 해외 공동결의에 따라 1990년 11월(19일~20일) 베를린에서 남북 대표단 공동선언으로 남, 북, 해외의 3자 연대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 결성되었다.

이어 1991년 1월 23일 남쪽의 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하여 문익환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윤영규 전 교조위원장, 권종대 전농의장, 박순경 여신학자, 계훈제 전민련 고문, 한철수 전대협 대표 등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각계인사 164명이 명세한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95년 2월 25일 강희남 목사를 초대의장으로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정식 결성되었다.

그렇다면 범민련은 과연 이북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활동하는 이적단체인가. 이 단체의 강령, 규약을 통해 그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의 남북대표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의 각계 각층 민중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루는 것은 조국통일과 민족자주권을 되찾는데 의의가 있다' 하였으며 '통일문제를 어느 특정 정파나 계층 위주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방제 통일방식에 의한 범민족 국가건설, 외세간섭 배격 및 민족자주성의 확립, 외국군대 철수, 남북상호군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채택했다.

이후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맞아 2001년 9월 18일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내용에 맞게 개정했다. 바로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1항)고 했으며,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간다(2항)고 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 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한다(3항).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4항)고 했으며, 남북(북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5항)고 했다. 또한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남과 북(북과 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6항)고 했다. 어느 하나도 이북을 이롭게 하고 이남을 해롭게 했거

나 이북을 찬양, 고무하고 이남을 헐뜯는 데가 없다.

규약은 모두 제1장 총칙, 제 2장 조직원칙, 제3장. 조직기구, 제4장. 지역조직, 제5장. 재정 및 감사 등으로 구성, 모두 20조 부칙으로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총칙과 조직원칙만 보기로 한다.

총칙 제2조에서는 범민련은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연합체라고 했으며, 또한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3조)고 했다. 조직원칙에서도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고 본연합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로 구성한다(4조)고 했으며, 민주주의 원칙과 남 · 북 · 해외 3자 합의에 의하여 조직, 운영된다(5조)고 했다. 또한 범민련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국 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6조)고 했다.

이처럼 강령과 규약은 전민족 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거국적인 통일운동의 연합체임과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동등한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갖고, 공동행동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검찰이 말하는 범민련 조직체계도처럼 조선로동당 통일선전부 → 조직평화통일위원회 → 범민련 북측본부 → 공동사무국 → 남측본부 식의 이북의 통일선전부가 관장하는 통일전선 전술에 따른 이북의 주의주장에 동조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온겨레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6.15 공동선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등 결코 이적단체가 아니고 이규재 의장이 남측본부에 가입한 것은 민족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칭송받을 일이지 이른바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연락한 혐의'이다.

이는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이 2003년 3월 4일부터 2009년 5월 3일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이, 남 · 북 · 해외 임시의장단 회의 중계, 남 · 북 대학생회간 신효순, 심미선 공동추모와 반전평화 미군철수 관련 문건수발, 범민련 결성 15,16돌 축하문 수신, 조선직업총동맹 – 민주노총통일위원회 사이 업무연락,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발송 및 북측기고문 등을 수발한 내용과 따로 이경원 사무처장이 2003년 4월 12일부터 2004년 7월 6일까지 공동사무국과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실무협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55돌 토론회 관련 문건 발신, '민족의 진로' 송부, 범민련 공동사무국과 해외본부의 남측본부 8기 2차중앙위원회 총회 격려문 수신, 북측 조선평화옹호 전민족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와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사이 문건 수신, 범민련 북측본부(민주여성동맹)에서 남측본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반미여성회)로 보낸 문건 수신, 5.1 평양 노동자대회관련 남측참가단 명단(민주노총) 송.수발, 공동사무국에서 범민련 서울시연합 결성 10주년 축사 문건 수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김일성 주석 10주기 추모대표단 방북불허 방침 비판문건 수신, 범민련 부산.경남 연합 창립 10돌 기념 축사문건 수신,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한청이적단체 규정 선고에 대한 규탄 내용 문건 수신 등을 두고 씌운 혐의이다.

그러나 이같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사무국 사이의 각종 문건수발과 연락관계는 범민련 규약에 따른 공동의장단 회의 등에서 채택된 결의사항의 집행과 각 본부간 연락 및 민족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3자연대회의의 연락이고, 6.15 공동위가 결정되기 전 남과 북 해외의 부문단체별 연락창구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밖에 없어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연락창구로 이용했을 뿐이지, 국가의 변란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의 통신연락이 아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진보연대 정책국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며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표' 한 혐의이다.

이는 2004년~2009년까지 '미군강점 59년 한반도 핵전쟁 주범, 통일의 걸림돌, 9.8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 · 북 · 해외 공동기자회견', '전쟁반대 평화실현 미군철수를 염원하는 남 · 북 · 해외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발표기자회견', '3대공조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침략적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남 · 북 · 해외 사회단체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 '서해군사 충돌방지, 현인택 내정철회,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촉구 시국농성,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범민련 임시의장단회의(2004~2008),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9기~11기) 등 행사과정에서 공동사무국을 통한 실무적 통신연락을 하고, 주한 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 등 이북의 주장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하며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등은 범민련뿐만 아니라 이남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연대하여 실천활동을 해왔었다. 민족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지침'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남 · 북 · 해외가 같은 주장을 하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연한 활동을 이북이 주장했다 해서 이북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거나 이를 동조했다고 범죄시하는 것은 냉전, 공안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범민련 관련자들이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온 것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이북의 주장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행위가 아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진보연대 정책국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국외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 한 혐의이다.

이는 이경원 사무처장이 2004년 11월 23일, 광복 60돌, 6.15 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북측의 민화협과 실무 접촉을 위해 남측의 통일연대 실무대표단으로 회담장인 금강산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과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이 2004년 4월 12일 북경에서 열린 북측 민화협과 남측 통일연대 사이 교류 협력사업 협의차 북경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과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이 2005년 4월 7일 심양에서 열린 6.15 남, 북, 해외준비위 실무접촉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2005년 9월 27일 북측민화협과 남측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이의 남북화해협력과 대북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평양문화유적참관단 301명과 함께 평양에 다녀온 일,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2005년 12월 9일 ~11일 사이 심양에서 열린 6.15 공동위 남 · 북 · 해외 대표자 회의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2006년 8월 22일 심양에서 열린 남측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사이 큰 물 피해 복구 지원사업 평가 등 실무협의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의 2007년 11월 6일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사이의 사업평가와 협의차 개성을 다녀온 일 등을 특수 탈출, 회합, 잠입으로 둔갑시킨 혐의이다.

그러나 위에 기재된 대로 6.15 공동위 남 · 북 · 해외 대표자 회의와 남측의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사이의 교류 협력 관련 실무회의 등을 위해 다녀왔을 뿐, 그 무슨 지령 수수니 목적 수행 따위는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이다. 이경원 사무처장이나 이규재 의장이 통일연대 소속으로 한 것은 공안당국이 범민련 소속으로 하면 불허조치를 했기 때문으로 이는 범민련 성원뿐 아니라 이 기간 6.15, 8.15 행사 등 남측 통일연대 소속단체들은 모두 소속 고유단체 이름이 아닌 통일연대로 통일시켜 방북 신청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공안당국이나 통일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

남북 사이 6.15, 8.15 행사 외에 각 부문 단체들 사이 수없이 많은 인원이 평양이나 심양, 금강산, 개성 등을 다녀오며 북측 성원들과 만나, 현안을 토의하고 회합해오고 있었는데, 범민련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표적탄압이고 민간통일운동 탄압이다. 남북 사이 교류협력과 자주통일을 위한 방문과 회합 등은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다섯 번째,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진보연대 정책국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 한 혐의이다.

이는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이 2004년 9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59호에 '우리 민족의 행보와 정면 어긋나는 위험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이란 최은아의 글을 싣는 등 2005년 5월, 11월, 2005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9회, 2007년 2월~2008년 7월까지 5회에 걸친 '민족의 진로'를 발간한 일과, 범민련 홈페이지에 남 · 북 · 해외 공동성명 '한미전시증원 – 독수리통합연습계획 당장 철회하라'를 게시한 일, 범민련 사무실에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을 비치한 일, 최은아의 '2005, 조국통일운동의 목표와 과제'(2005.1월)를 비롯하여 2007년 2월 자신의 이메일에 접속 '2007. 정세전망 및 사업 계획'이란 기고문을 조 oo 명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9편의 기고문을 발송 또는 송부 받을 일로 기관지 발행과 통일운동과 관련된 기고문을 걸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소지 혐의를 씌운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진로'에 실린 글이나 최은아 활동가의 여러 기고문들은 통일운동과정에서의 정세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 등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통일을 목적으로 쓴 글이지 이적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같은 글이나 비치된 책자 등이 국가 변란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 인권 법규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속한다. 누구든지 양심에 따른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갈라진 나라의 민족구성원으로 자주통일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것은 민족권리이기도하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사실의 마지막 사항으로 이경원 사무처장이 '국가의 존립 인권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한 혐의이다

이는 2004년 2월 2일 당시 나창순 의장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부터 2,263,587원을 비롯하여 2006. 8.25일까지 11회에 걸쳐 '민족의 진로' 구독료로 10,803,175원을 송금받은 혐의이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도 말했듯이 '민족의 진로' 구독료 일

뿐이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제까지 범민련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있는 피의 사실과 그 부당성을 알아보았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을 통한 통일운동 탄압이고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반영한 냉전 공안논리이다. 적어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은 서로를 인정, 존중하기로 했고 사상 · 이념 · 제도 · 체제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하기로 했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사이엔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있었다. 따라서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처벌규정을 둔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존립명분을 잃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정부 시기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에서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죽어가던 반통일, 반인권 악법이 되살아나 온 겨레의 염원과 지향을 짓뭉개고 있다.

범민련 관련자들은 다른 통일운동 단체 성원들과 함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북과 중국 등지에서 있었던 6.15, 8.15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회의와 실무접촉에 참가해왔었다. 지난 정권 시기 간혹 불허한 경우는 있었지만, 범민련 성원이라 하여 문제시 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해 실천연대에 이어 이번 범민련과 지역 통일운동 단체에 숨겼던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댔다. 동족을 고립압살하는데 외세와 공조하더니 이제는 통일운동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며 무차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과연 공소장에 있는 범민련 관련자들의 행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일이 있었던가. 오히려 범민련 관련자들이 열심히 통일운동 하는 동안 남북관계도 이남의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되고 있었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일방적 독주로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파탄나고 있지 않았던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망발로 이제까지의 모든 남북사이 합의를 부정한데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흔들고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범민련 등 통일운동 단체 탄압 중단하고 관련양심수를 즉각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반북대결정책 당장 그만 두고 6.15, 10.4 선언 이행하라.

비전향장기수 신현칠선생님께서 참으로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일제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를 살아오시면서 그 치열했던 삶과 사상의 편린들이 담긴 '변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변하고 있다'를 삼인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1917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선생님은 일찍이 해박한 한문학에 바탕하여 마르크스주의에 입문하셨고 일본유학과 항일운동과정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1년간 구금과 강제추방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조국해방과 함께 당에 입당, 진보언론의 이론부문에서 활동하셨고 전쟁시기 합법공간에서는 문화선전성에서, 북으로 후퇴시기엔 자강도 인민보 논설기자로 활약하셨습니다. 1953년 통일염원을 안고 남녘에 오셨다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0년 옥고를 치루시고 1962년 출소하셨습니다.
그러나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감호처분(구속)당하고 이 악법이 폐기되기 바로 전 1988년까지 13년의 옥고를 치루고 비전향으로 출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오마이뉴스. 성서와 함께. 대학생창작교실 자료집 등에 사회평론 종교담론 문학이론 등 해박한 논리를 기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12월 뇌졸중으로 입원 이듬해 초까지 치료받으시느라 한때 글 쓰시기를 멈추기도 했었지만 읽고 쓰기가 생활화되신 선생님의 강인한 집념은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처분을 당한 13년의 빼앗긴 시간을 '사각지대에서'로 정리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2년 옥중시조집 '필부(匹夫)의 상(像)'과 시집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을 개마서원에서 펴내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글(책)속에는 한평생을 청렴으로 살아오신 조선 선비의 강인함과 멈출 수 없는 변혁논리 무한한 창조적 생활신념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천외(天外)에 던지는 시

-나의 스승, 신현칠 선생님 -

박소연 | 소설가

"위대한 사람의 성취와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청사(靑史)에 자리가 없는 필부(匹夫)의 과오와 비참을 기록하는 것이 과연 쓸모있는 것일까"

글을 묶어 수상집 출간을 권유해 드렸을 때, 신현칠 선생님은 이렇게 되물으셨다.

1990년 즈음이라고 기억된다. 우연히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영어생활을 오래한 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유쾌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이 계기가 돼 종로 이문학회를 드나들며 신현칠 선생님께 논어 강독을 듣게 되었다. 선생님은 동서고금 고전들의 '생명있는 마디'는 모두 변증법이 살아있다고 했다. 특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한다(知其不可而爲之)"는 공자의 이상주의는, 칸드의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땅히 네

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Du kanst denn 여 sollst). "는 이상주의를 뛰어넘어서는 것이라 했다. 선생님의 삶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상을 향해 자강불식(自强不息)해온 평생이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선생님 수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심안으로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심미안이었다. 선생님은 20대 초반 덕수궁 박물관에서 금동미륵반가상유상을 처음보고 조각상의 '영롱한 사유와 예지"앞에서 시간이 멎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본질만 남는 지혜'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평생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식민지의 아들'이라는 시대고(時代苦)는 천년 전 조각상이 불 지핀 예술적 갈망에서 결국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해석할 때도 선생님의 시선을 중앙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옆에서 심판받는 죄인들을 보며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향해 있었다. 엄정한 단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죄인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리아의 기도에서 나는 선생님의 비원을 들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수업을 마치며 선생님은 "우리 민족도 르네상스를 경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정 내 삶에도 르네상스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고 꿈꾸던 시기였다.

한번은 수업시간에 누가 선생님께 전향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생각에 잠겼다 나온 선생님의 대답은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것이었다.

"내 비전향은 뉘우침에서 비롯됐어요"

선생님은 ,조선자연과학사상사'를 집필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으나, 1942년 동경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때 학문과 생활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 일제의 일시적인 투항을 했다. 그러나 추방돼 돌아온 고국에서 소위 '사상보호관찰'이란 일제의 엄한 감시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묵과 무위의 시간을 보내며 존재가 해체되는 내적 고통을 겪었다. 선생님에게 그때의 슬픔은 비전향의 자산이 되었다. 1975년 사회안전법으로 구속됐을 때 오히려 구원처럼 느껴졌던 것도 무위의 시간이 주는 고뇌가 구금의 고통보다, 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죽음이 있어야 할 때 기꺼이 맞는 것은 약한 자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했다. 구금된 후 옥살이를 정성껏 하리라 다짐하자 도리어 기쁨조차 느꼈다고 했다. 선생님의 진솔한 이야기는 어떤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문학회에 가 신현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에너지가 다한 전지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같은 힘을 얻었다.

1996년 선생님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하셨다. 선생님은 이때의 낙상이 청년기 폐결핵을 앓았을 때처럼 인생에서 가장 좌절한 때 중 하나라며 낙심하셨다. 병의 후유증으로 결국 선생님은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칩거하셨다. 몇몇 잡지에 실리던 선생님의 논고나 단상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병고 중에도 다시 글을 쓸 구상을 하고 계셨다. 사회안전법으로 구속된 1975년부터 이 법이 악법으로 비판받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1989년까지의 시기를 기록한 「사각지대에서」가 그것이다. 이 글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던 사상 전력자들을 '내심'만을 문제 삼아 헌법에 명시된 사법절차조차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수감했던 전제적 악법의 탄생과 죽음을 증언한 기록이다. 하마터면 사장될 수도 있었던 청주보안감호소의 역사가 선생님의 붓끝을 통해 복구되고 있었다.

신현칠선생님은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사람의 행위를 벌하는 범위를 넘어서 내심을 벌하는 것은 역사이래로 어떠한 통치자도 성공해본 일이 없다. 권력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위 할 것을 명할 수는 있어도 그가 생각하는대로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죽겠다는데야 도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아니라 내심 자체를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또 전향을 권유하러 감호소에 찾아온 검사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그 자유 가운데는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유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신현칠 선생님은 , 내게 소설의 테마와 영감을 주신 스승이다. 소설출판이 좌절돼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해 있었던 적이 있다. 내가 재능이 없음을 탓하자 선생님은 '사심이 있다'며 오히려 나를 꾸짖으셨다. 선생님은 유산을 거듭하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석녀가 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이의 마지막 소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과 죽는 순간을 바꾸는 것이었다. 죽음과 출산의 순간을 바꾸려 했던 석녀의 은유는, 사실은 선생님이 내안에 문학을 향한 진실성이 있는지를 매섭게 묻는 질책이었다. 오랜 산고 끝에 첫아이를 낳았을 때, 선생님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찾아오셨다 말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내가 소설을 쓰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산고를 이겼듯이 창작의 진통도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었다.

1999년 선생님에게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남북화해와 해빙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비전향장기수 가운데 희망자는 북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 이전에 송환된 이인모 선생이 북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선생님이 북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시길 바랐다. 북에 가면 생활고가 해결되니 저술활동에 대한 필생의 꿈을 이루어보라는 주위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도 있었다.

그러나 내외신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북으로 송환되는 비전향장기수 대열 속에 신현칠 선생님은 없었다. 선생님은 남에 남는 길을 택하신 것이다.
문득 예전에 선생님이 자문하듯 하신 이야기가 귓가에 스쳤다.
혁명가가 민중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죽거나 승리해야 하는데, 나는 싸우다 죽지도 않았고, 승리하지도 않았어...."

선생님은 왜 북에서 승리자가 되는 길을 마다하고 고난을 감내하며 남쪽 사회에 남는 길을 택했을까. 왜 선생님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쪽 민중 곁에 남았을까.

무엇보다 선생님은 남과 북 모두에 가족이 있는 이산가족이다. 나중에야 선생님이 북으로 송환되는 벗들을 환송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쓴 시 「천외(天外)에 부치느 호소-북의 아내에게」를 읽으며, 송환을 앞두고 선생님 마음속에 오간 심회를 짐작하게 되었다.
송환의 열기가 사그라진 뒤, 선생님께 송환 대열에 오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수의 몸이지만 죽는 날까지 남쪽에 남아 분단의 아픔을 겨레와 함께 하고 싶은 소박한 소망에서"라고 담담히 대답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언제가 선생님은 '생각은 같아도 심장은 다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했다. 나는 폭력과 감금 뿐만 아니라. 환대와 영광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엄함을 보았다.
북 송환이후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점점 시들었다. 그러나 나는 비로소 신현칠 선생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스승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은 오히려 이때부터였다.
선생님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떨리는 손으로 사각지대에서의 집필을 계속하셨다. 원고지로 20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돌에 전각을 새기듯 원고지 위에 한 획 한 획 글을 쓰고 계셨다. 제작년 즈음일 것이다 선생님의 눈에 백태가 끼어 책 읽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다고 하셔서 함께 안과를 찾은 적이 있다.
아흔의 나이에도 선생님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하셨다. 선생님은 때때로 '신문이 소설보다 더 재미있어'하셨는데, 그날도 선생님 책상에는 라틴아메리카에 부는 새로운 진보적 흐름을 전하는 신간들이 놓여 있었다.
안과의사는 백내장 수술 뒤에 찾아오는 후유증인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했다. 책을 읽고 싶다고 찾아온 아흔 노인 앞에서 의사는 '집념이 있으시지만..... "하며 말을 흐렸다. 선생님의 이력을 알 길이 없을 그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안경을 새로 맞추러 간 안경점 안경사가 시력검사 내용을 보고 "아이구!"하며 놀라는데도, 선생님은 렌즈 두께가 1센티미터가 넘는 돋보기 안경를 맞추며 다시 책을 볼 수 있다는 기대로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선생님은 평생을 책과 숨바꼭질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사회에서는 생활고에 정신없이 살다보니 책 볼 겨를이 없었고 , 옥중에서는 시간은 무진장 있지만 책이 없어 못보니, 안타깝게도 황금의 세월을 책과 숨바꼭질하며 학문에 대한 사랑으로 애달파했다고 했다.

뜻하지 않게 선생님의 사상적 편력을 짐작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선생님 댁에 갔을 때다 책상에 추사(秋史)의 '묵소거사자찬(默笑居士自讚)'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웃어야 할 때 웃은 것은 중용에 가깝다'로 시작하는 조선조 문인 김유근의 시를 평생지기인 추사(秋史)가 해서로 쓴 작품이다. 나는 친구의 자화찬 시를 행초서가 아닌 단정한 해서로 쓴 추사의 심사가 어쩐지 정답게 느껴졌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어릴 때 구양순체를 임서(臨書)할 때 아버지께서 글씨는 해서가 제일이고 , 세상 사는 데에도 해서처럼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 번 들은 말이 인이 박힌 듯 잊히지 않아."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선생님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난 평생을 잡귀신들과 씨름해왔어..."

무슨 말인가 의아해 고개를 들자 선생님은 정색을 하며 덧붙였다. "이봐! 잡귀신은 본귀신이 아니야"

정통 코뮤니즘에서 본다면 선생님이 평생을 가까이 했던 붓다와 예수. 공자는 이단이다. 그러나 이 이단서들과 씨름하여 선생님은 오히려 견실한 코뮤니스트가 되는 길을 정련해왔다 정도를 걸으면서도 선생님이 사상이 진부하지 않고 새로운 것은 평생을 가까이해온 이 이단서들과 부딪쳐 밝힌 빛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선생님께는 뚜렷한 학력이 없다. 10대 후반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졸업을 앞두고 학업을 중단했고, 일본에서 유학했던 동경물리학교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결국 마치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일찍 가장이 되었고 해방 후 혁명전선에 뛰어들면서 학문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성은 반드시 상아탑에서 벼려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dr역사현장 속 치열한 삶에서도, 독서와 성찰 속에서도 새로운 사상이 잉태된다는 것을 나는 신현진 선생님의 삶에서 보게 되었다.

선생님의 서가 '수졸산방(守拙山房)에는 젊은 시절 선생님이 경황없는 와중에도 지나가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적어놓은 쪽지들을 보관한 상자가 있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소설 재료로 쓰면 좋겠어, 실패한 코뮤니스터가 젊었을 때 이렇게 고민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어...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으로 송환된 뒤 북에서는 그들이 삶을 복원하려는 출판물이 봇물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비전향장기수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긴 출판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한 출판인은 신현칠 선생님이 남쪽에 남았기 때문에 책이 빛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역사는 신현칠 선생님의 삶을 어떻게 이야길 할까, 통일된 두 사가들은 선생님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남쪽에 남아 고난을 감내하며 사회안전법의 시대를 기록한 신현칠 선생님의 삶을 훗날의 역사는 한층 더 의미있게 조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생님에게는 아직 다하지 못한 꿈이 있다. 우리나라 장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죽음을 성찰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아흔 노장이 현역의 화살로 천외에 던지는 시(詩)가 될 것이다.

상습 시위꾼(?) 김현수

모성용 | 양심수후원회부회장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체구, 날카로운 눈매,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외모를 지녔기에 십 수 년 간 보아오면서도 스치듯 지나는 만남은 몇 차례 있었으나 따듯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해본 사람. 그러나 작년 광우병 미국쇠고기 반대 촛불을 함께 들며 잊을 만 하면 만나던 만남이 수일 혹은 매일로 바뀌며 나누는 인사도 눈인사에서 수인사로, 함께 식사로, 술자리로 이어져 마침내 나의 양심수 후원회 상근기념 첫 취재대상이 되어버린 사람, 이 지면의 주인공 김현수회원이다.

4월의 어느 날 후원회 홈페이지 작업에 필요해 지난 소식지들을 뒤적거리다 96년 12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소식지 표지사진에서 김현수회원(이후 그냥 내가 부르는 데로 선배로 칭한다.)을 발견했고 '선배가 활동한 것이 그리 오래되었나?' 싶었다.

원채 말이 없어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해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도 선배를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데 생각이 미쳐 '이런 회원'란에 써보기로 했다. 5월 중순 의사를 전달하고 구두로 확답을 받았으나 6월 10일 원고 마감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고.... '이렇게 안보일 사람은 아닌데' 할 무렵 후원회로 연락이 왔다. 김현수 선배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속성으로 진행된 재판으로 몇 차례 면회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도움도 주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으로 7월 15일 출소를 하고 나서야 유학수 선배님(한반도 깃발 아저씨라면 더 잘 알까?)이 동석하신 자리에서 한달이 넘게 미루어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충남 금산군 남일면에서 58년 태어난 선배는 2남 5녀 중 장남으로 고향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던 중 군입대 신검이 나오고 자신은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는 군대에는 가고 싶지 않아 군대를 안가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다고 한다. 신체검사장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어쩌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을 즈음 아들의 장래를 염려한(군대를 정신병력으로 면제받으면 평생 따라다니며 꼬리표가 붙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것) 아버님이 군대에 손을 써 입대를 시켰고 파주 백마부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했지만 정말 총만은 들기가 싫어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면담을 차례로 거치던 중 훈련에 나선 선배는 마침내 영외 일반 가게에 총을 두고 와버렸고 이 사건으로 부대에 비상이 걸리면서 고참들에게 말 그대로 죽지않을 만큼 얻어맞아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군에서 나오게(의가사 제대) 되었단다.

그 후 3년여를 집안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25살 무렵 서울로 상경하여 충무로에서 인쇄회사에 취직하여 일하던 중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게되자 사장이 해고를 했고 별다른 복직투쟁도 해보지 못한 채 먹고 사는 일이 급해 용역회사를 찾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루 일당 65,000원 혹여 고된 철근 일을 하게 되면 110,000원을 받는단다. 그나마 요즘은 건설경기가 죽어서 일거리가 거의 없다니....

결혼은 안했느냐는 물음에 부모님 연세가 있어서 일찍 가라 소리에 군대도 가기 전 결혼을 했단다. 그러나 결혼 2년이 안되어 신부가 도망을 갔다고 알려주며 작은 소리로 "여자가 좀 모자랐어"한다. 아무말 없이 듣고 계시던 유학수 선배가 한마디 한다. "너보다 더 모질랐을 라구~~" –암튼 아픈 이야기니 슬쩍 눈치보고 넘어가자

연행과 조사 그리고 옥중 생활을 묻자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를 마치고 시청 앞 대한문에서 밤샘을 하던 중 열린 서울광장을 경찰이 30일 새벽 경찰

들이 침탈할 때 연행되어가는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을 구출하려다 함께 연행되었고 시위 전력이 있어 소위 '상습시위꾼'으로 분류되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전두환시절 평화의 댐 건설자금으로 뺏어가다시피 한 3만원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단다. 조사원이 "당신같은 사람 첨 봤오"라고 했다나?

옥중생활은 출소 일주일 전부터 독방생활을 했다고만 전한다. 하지만 안다. 선배가 남들보다 더 수감생활이 어려웠을 거란 것을 .... 치료 시기를 놓쳤는지 남은 이가 너댓개 뿐이고 제대로 밥을 넘기기도 어려워 세끼를 거의 빵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유선배가 건치를 통해 해결하려 애쓰고 계시다는 것도 ...

후원회와는 90년대 중반쯤에 거리에서 유인물을 통해 알게 되고 그때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산행이나 모임에 참석해 왔단다. 후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은 단하나 "하루 빨리 후원회가 할 일이 없는 사회가 되어 양심수후원회가 없어졌으면...."이라며 한마디 덧붙인다.

"여하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후원회 활동은 계속할 겁니다."라고

말 없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 자기가 더 어려우면서 영치금에서 남았다고 8만원을 서울구치소에 남은 동지들에게 영치금으로 전하고 나오는 사람, 민가협 장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각종 집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해, 없는 주머니 털어 무엇이라도 사주는 사람, 그러느라 자기 틀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무서운 얼굴이지만 동지를 만나면 순박해 지는 사람, 십 수년 전부터 노래패 '꽃다지' 후원회원이었던 사람, 날카로운 눈매와는 달리 몇개 남지 않은 이를 보이면서 환하게 웃는 따듯한 가슴을 가진 사람

이 모든 장점을 갖고도 조리 있게 말을 못해 곁에서 유선배님이 "너 글은 알어?"라고 놀릴 정도로 어눌해도 김현수 선배 난 당신이 참 좋습니다.

알립니다

출소 장기수 신현칠 선생님께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책을 통하여 아흔을 훌쩍 넘어 육신의 쇠약을 넘어선 한 코뮤니스트의 올곧게 지켜내신 신념과 염원을 엿볼 수 있을것입니다.

■책구입문의 : 후원회 사무국-02-874-4063, 임미영 0104563-0559

■ 한찬욱 사월혁명회사무처장:016-235-5631

윤기진 님의 편지

양심수 후원회 가족들, 그리고 전국의 양심수 동지들
16개월의 긴 재판을 마치고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상고심은 대법원 3부였는데, 여기에는 그 유명한 신영철도 있었답니다. 열심히 싸우기는 했지만 찝찝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의 재판을 하는 동안 열 명의 판사를 마주했습니다. 이전에는 검사에 비해서 판사들은 양호한 편이고 다만 비겁한 집단정도라고 여겼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초록은 동색이었습니다. 저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구나 싶습니다.
오자마자 독거실에 배치가 됐는데 서울구치소에 비해 방이 많이 작습니다. 서울구치소도 한 평이었는데 말이죠. 우선 짐을 대충 정리하고 며칠 밤을 지내보았지만 쉽게 적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80년대 우리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의 피땀이 어려 있으리라는 짐작을 가지고 '체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리에 누워보니 '교양효과' 는 제법 되더군요. 그때도 선생님들이 제가 있는 4사에 계셨던가요?
인공위성 정국이 가져다 준 긴장감, 더해서 흥분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MB도 우리민족도 모두가 시간이 없으니 현 정국이 오래 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중재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야죠. 대결이 본격화 된 지가 길게 보면 이십년 가까이 되는데 대결과 대화를 언제까지나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학습효과' 라는 것도 있는데 끝을 봐야죠.
극적 협상과 타결이든 극한의 긴장과 충돌이든 감옥안 양심수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어떤 길을 지나게 되던 종착지는 모두가 바라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옥안에서 주어진 지금 시간이 저희에게 소중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우려고 6월부터 폭염주의보가 남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까짓 정세에 몰입해서 한껏 달구어져 더위를 이겨보지요. 동지들. 다가오는 승리를 위해서 신념과 실력과 건강을 잘 가꾸어 갑시다.

– 2009. 6.26 대전에서 윤기진 올림

윤형남 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양심수 후원회 여러 선생님들께
지난 5월 20일 "집시법", "특수공무방해치상" 으로 구속된 윤형남입니다.
구치소로 보내주신 소식지와 민족21이 잘 도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양심수로 수감중인 분들을 후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억울하게 구속된 동지분들에게 안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말도 안되는 판결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곳에서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할 노릇이며, 저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가진 동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보았으며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를 억압당하고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바른 말로 하는 사람들은 왜 구치소와 교도소로 가야되는지, 이곳 서울구치소에는 몰아붙이기 수사로 구속되신 선배님들과 전철연 회원 및 많은 노동자 분들이 있습니다.
후원회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은 감사합니다.
이명박의 공안탄압은 노동자, 진보세력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정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이명박 불통주의 공안정국을 깨뜨려야 될 것 같은 힘의 시기인듯 합니다.
정당,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 등 모두 다 단합된 힘으로 밀어붙여야 할듯 합니다.
경찰과의 대치에서 밀려나면 대오가 흩어지듯이 한 번 밀리면 한 없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타도, 명박퇴진

독재 정권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이명박정권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분투하고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저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말살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살인정권 독재타도 이명박 퇴진
– 서울구치소 57번 윤형남 – 친구야 놀자
※ P.S 147번 선배님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종우선배님 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모든 양심수분들의 문제입니다.
후원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2009. 7. 2. 윤형남

사랑하는 동지 선,후배 여러분 더위에 분투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뉴스자막에 '용산범대위' 2명이 부상당했네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동지이심에 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오후 면회 중 29번 이충연님의 인자한 인사를 받습니다.
목발을 짚고 악수하는 손에는 참 따스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군요.
나는 지금 아주 긴요하고 간절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경기 군포 인덕원역 서울구치소입니다. 저 147이종우와 57윤형남(친구야놀자 깍지)가 같은 동 층 옆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종우는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항소신청했습니다. 아마 증인심문 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구속수사 되던 사람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나 보석으로 풀려나던 이전과는 달리 실형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월 1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보면 저 이종우의 선고재판 내용이 자세히 실렸습니다. 아주 포악한 폭도로 몰았고 내가 주장하거나 반성한 것 등은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측 경찰의 제출 증거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항소를 해도 1심 내용을 존중해서 가석방등이 거의 없이 계속 실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1년 내외의 실형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그 고통은 물론 전과자에 인생, 살아온 인생 다 망가지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를 토하는 고통으로 이 글을 쓰는데 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실지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1.체포즉시 아주 경험많은 선배가 실질적 법재판운용 가르쳐주고 2.검사와 판사에게 영향력이나 인지하는 확실한 변호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또 자금이 필요합니다. 경험코 싼 민변을 우리를 구속실형 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이 아주 없는사람도 있습니다. 4.이곳에 있으면 2*4m/m 방에 남자 7,8명이 일 30분 제외하고 종일 있는데 선풍기 1개조차 자주 멈춰섭니다. 죽을것 같아요. 그러니 매일 3,4명이 함께 면회와서 10분 간격으로 여러.명을 면회신청해 다같이 볼.수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신필히 주고가요–
구속자 중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외면당하는 것이냐고? 온라인회원은 모니터끄면 남이라고 울먹이더군요. 2주동안 면회한 번 없었답니다.
동지 여러분 다음번에 당신이 체포된다면 누가 도울까요?
동지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무릎굻고 머리를 숙여 다리사이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빌고또 빕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결론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렵겠지만 사이버상에서 공론화시켜주시고
둘째,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연행자모임–민가협등과 협력연계해 상시 운용체제를 가동해야합니다, 당장 이종우 윤형남에게 역량있는 변호사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 일 것으로 생각되나 상의해봐야 할 것이고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미네르바 '무죄선고 내린 박재영변호사님입니다(법무법인 동명)

우리 방에서 말도 안되는 사건도 집유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고법에 동기 등이 많고 역량과 의욕이 대단합니다. 돈은 제가 나가서 해야 할 사업 3가지정도 있으니 3~6개월 이내로 반드시 이자처리해서 갚겠습니다.: 이박변호사님 꼭 좀 접촉하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선정되어 우리 나가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셋째, 들은 말중에 민주당에는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무슨 부서같은 것이 있는가 봅니다. 이야기해서 자금 변호사 탄원서 국회의원 탄원서 등을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넷째, 면회오는 횟수도 양형에 관여한답니다. 그것 보다는 탄원서 조금 더 좋겠지요 여러 사람의 친필탄원서 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7월 6일 밤에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기상 명하니 숨만 몰아쉬며 면회오겠다 전해들은 이만을 기다리다가 저녁 7시가 되니 난 이제 여기서 못나가고 18개월 이상을 갇혀 지내겠구나 절망과 허탈 탄식에 ....지난 1년여간 치료하던 공황장애 폐쇄성 공포질환 중도우울증이 결국 터져 호흡곤란과 사지마비 급체온강하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구치소의 밤 50바라보는 중늙은이는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긴 내가 갇혀서 3개월 못 이길텐데 뭐 70일 넘어가니 어쩔 수 없지 포기하게 되더군요. 미안합니다. 굳이 하고픈 허세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윤형남의 눈물 머금은 눈을 이제 나는 보질 않고 짧은 30분 운동시간에 얘기만 합니다. 이종우는 3개월 내에 항소에서도 안되면 큰 결단을 하겠지요. 님들 다시 한 번 간청 드리오니 급히 도와주시고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2년 후 우리가 사회 나가면 누가 우리를 기억이나 할까요? 나가야 투쟁도 할 것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는 전화조차 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2009년7월8일 밤입니다.

알립니다

7월 후원회시사강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쉽니다.

무더운 여름 지혜롭게 잘 보내시고 8월 마지막주에
보다 좋은 내용의 강좌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알립니다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보기는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북한자료센타가 광화문우체국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여름이 지나 10월에는 다시 영화보기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찬욱회원(016-235-5631)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냉전의 시대에 갇혀있는 '우이령'

- 7월 12일 -

김양희 | 통일뉴스 기자 회원

전날 일찍 잠이 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계속 뒤척이고 있다. 창 밖에는 번쩍번쩍 천둥과 함께 번개가 치고있다. 단지 천둥과 번개 소리에 시끄러워서 일찍 깬 것만은 아니다. 오늘은 6.15산악회에서 등산을 하기로 한 날인데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자 지난번 등산모임에서 '출발시간 엄수! 늦건 말건 무조건 출발하겠다'는 등 반대장의 엄명이 내려진 터였다.

그동안 단골 지각생인 나는 오늘만큼은 절대 지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잠이 들기 직전까지 '일찍 일어나야하는데....' 했고, 그러다보니 설핏 잠이 들어 새벽같이 일어난것이다.

그러나 천둥과 번개, 그리고 세찬 비는 나를 계속 갈등하게 했다.

'가긴 가려나?', '비가 좀 그치려나?'

그러다가 깜박 졸고, 놀라서 깨고, 그러기를 몇 차례..

도저히 지금 안 일어나면 시간에 맞춰 갈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아침 7시, 이른 시간이었지만 혹시나 해서 김재선 대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등산을 가나요?"

한편으로는 비를 핑계로 잠을 더 자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다. 평소 같았으면 별 고민 않고 좀 더 잤을지 모르는데 오늘은 그동안 김신조 침투로 인해 막혔던 '우이령'을 방문하기로 했고, 그 취재를 내가 맡았기 때문에 절대 꼭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대도 잠깐, 비가와도 눈이 와도 무조건 모여야 한다는 6.15산악회의 원칙에 고스란히 가게 됐다.

전화통화를 들은 엄마는 "이 비에 어딜 가느냐"며 만류를 했지만, 취재를 맡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가야 한다며 우의, 우산 등을 단단히 챙기고 나섰다.

그렇게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있었다. 오히려 지난번 산행보다 훨씬 많은 15명이나 모인 것이다.

지난번에는 범민련 회원들이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범민련에서도 오고 노수희 의장을 비롯, 산행에서 자주 뵙지 못하던 어르신들까지 많이 오신 것이다.

지난번 지각에 대한 경고 효과가 컷 던 탓인지 그리 늦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되자 바로 출발을 했다. 비를 뚫고서 줄지어 가는 것이 꼭 예전에 갔던 강원도 고성부터 강화도까지 휴전선을 따라 걷던 국토대장정 생각도 나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비가 오더라도 항일유격대원들은 비가 아무리 세차게 와도 산을 누비고 다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이곳이 개방되면서 김신조가 다녀갔다고 매체마다 크게 보도를 했다.

그러다보니, 회원들에게서 자연스레 김신조 이야기가 나왔다.

김신조 사건이 1968년 1월 16일에 일어났으니 내가 태어나기 전 일이라 그리 실감이 나진 않는다. 다만 실미도 영화 등에서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이다.

유영호 선배에 따르면 북한의 침투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나무꾼들로 파주군 초리골에서 우씨 형제 4명을 한꺼번에 만났다. 이들은 원래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만나면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를 않았고 심지어는 갖고 있던 시계까지 선물했단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유영호 선배는 "북한군들은 남한

주민들이 인민해방을 위해 온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나보다"고 추정을 했다.

그러나 우씨 형제는 바로 신고를 했고 그때의 공적으로 형제 중 막내는 "무엇이 하고 싶으냐"고 묻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그 시절 최고의 직업이었던)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고 현재도 파주경찰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북한군들은 한국군과 미군 관할지의 경계선을 따라 쉽게 진출을 했다. 부대 간 경계 지역이 허술하고 미군 지역에서는 한국군을 잘 못 알아본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생각은 적중을 했고 이들은 완전군장을 하고 눈 온 후 산길이 험해 시간당 4㎞정도 이동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남한군을 따돌리고 10㎞씩 행군을 했다 한다.

어쨌건 우이령 길은 그 이후 막히고 4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열린 것이다.

우이령길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으며, 일제강점기 조국 산천을 바위고개로 비유한 가곡 '바위고개'의 작사 장소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 우이동을 연결하는 좁은 고갯길이었으나 1965년 미군 공병대가 도로로 개설했다. 이후 1968년 1월21일 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피습사건의 이동로로 이용됐으며, 1969년 군부대와 전투경찰대가 주둔하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나의 외가는 강화도인데 어릴 적 강화대교를 건널 땐 꼭 총을 든 군인이 버스 안을 둘러보고 조금이라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분증을 보자하곤 했다.

우리 아빠는 키가 180㎝에 체구가 좋은 편이어서 꼭 외가에 갈 때면 군인에게 꼭 신분증을 보여야 했다. 새벽이면 대남방송을 해준다고 하고 산에 올라가면 북한이 보인다고 했다. 그땐 삐라도 많이 발견 되곤 했다.

외가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수업시간에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밤에 라디오를 몰래 듣는 사람 등은 신고를 하라고 늘 교육을 받았다. 1980년대인데도 그 정도였는데 1960년도에는 정말이지 대단했을 것이다.

그런 우이령이 열렸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시간을 돌려놓은 듯, 그때로 치닫고 있다.

계곡물이 심상치 않게 불어있다. 물이 회오리를 쳐가며 세차게 흐르는 것이 '저 한가운데 있으면 진짜 쓸려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빗속을 뚫고 한참 오르고 있는데, 순찰차가 지나며 "기상특보 발령으로 입산금지"라고 한다. 허거덕~ '결국 입산금지 구나' 하며 되돌아가려는데 일행이 계속 오르고 있다. '오를 수 있는 곳 까지는 무조건 오른다'는 권오헌 회장의 의지는 주변을 독려하고 있었다.

언제 올랐는지 입산금지 통제구역까지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계속 하산중이다. "그냥 내려가시죠, 얼마 못 오르십니다"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계속 전진, 또 전진이다.

그렇게 한 30여분 올랐을까, 관리사무소가 있고 아예 줄을 쳐 놓고 막아놓고 있다. 담당자들은 산에 오르겠다는 등산객들과 실랑이 중이다.

일행은 아쉬운 마음을 접고 기념촬영을 하기로 했다. 직원들도 "산에는 못 가게 하지만 사진은 얼마든지 찍어드릴 수 있다"며 나선다.

그렇게 빗속에서 한 장, 또 관리사무소의 '집중 호우로 인한 입산통제' 전광판에서 한 장. 그렇게 두 장을 찍고서 하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이령은 갈 수 없었고, 우이령이 생태가치가 높아 7월 27일부터는 보름 전부터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야(1인 최대 대리 신청 인원 4명)하고 하루 360명까지 9시부터 4시까지만 산에 오를 수 있다니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우이령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주변에는 아직도 전경과 군 초소들이 있고 등산로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탄약고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정해진 등산로로만 가야 하고 4시 이전에는 모두 내려와야 된다고 한다. 아직도 우이령은 냉전의 시대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점심을 먹기에 이른 시간이지만 그저 헤어지기도 아쉽고 해서 등산로 입구의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은 산상강연이 아닌, 식당 강연이 있었다.

범민련의 원진욱 사무차장은 최근 범민련 탄압을 비롯한 각종 공안정국 조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의장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노 의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안보위해사범100일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보진영 뿐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모두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구속시킬 사람은 구속시키고 자를 사람은 자르는 등 관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사람들만 채우려는 이런 노력들이, 우이령은 일부 개방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전체를 오히려 입산금지 시키기 위해 막아놓은 듯하다. 휴~ 비가 아주 하늘에서 퍼붓듯 쏟아지고 있다. 올 여름, 숨이 막히도록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냉전의 산물 우이령이 어서 열리고 세상 전체가 완전히 개방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이 시대의 아픔을!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나 전주전북대 병원 장례의식장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민주주의 압살과 남북관계파탄을 분개하여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신 통일원로 강희남목사님 빈소에는 이미 많은 조문객이 다녀가거나 찾아와 선생님의 죽음을 안타까와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수많은 사회시민단체에서 조화를 보내왔고 직접 빈소를 찾아 슬픔과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장례준비위원회에서는 전국규모의 장례위원회를 구성 10일에 서울에서 '고 강희남목사 통일민주사회장 열결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이 정치보복성 검찰수사로 자결한데 이어 한평생 교육자로 목회자로 민주투사로 통일애국투사로 살아오셨고 아흔에 이르신 나이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산화해가신 그 비장함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빈소를 찾아뵙는 데는 전북지역의 장기수선생님을 동지애로 극진하게 돌보아주고 계신 윤성남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빈소를 나와 전주교도소에 갇혀있는 이정훈님을 면회했습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적용을 받아 3년형 확정으로 수감되어 이제 만기출소 4개월여를 남겨놓고 계신 이정훈님은 통일애국인사들이 감옥에 가야하는 이 불행한 시대의 또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 사면 벽만을 대해야 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에 접근 재소자의 인권의 위한 자료집을 내는가 하면 사색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님은 비록 지금은 새장속의 새처럼 날개를 접고 있지만 머지않아 비상할 모습을 그리며 교도소를 떠나왔습니다.

강희남목사님 빈소와 전주교도소에 들린 후 서울로 떠나기 전 통일조국을 염원하여 활동한 일로 수십 년 옥고를 치루고 지금은 신념의 고향으로 2차 송환을 기다리고 계신 비전향장기수 김기찬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5월 25일 원광대 병원에 입원하시어 인공심장 박동보조기를 다는 수술을 받으시고 6월 5일 퇴원하여 지금은 통원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만에 찾아간 나를 송구스럽게도 참으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술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며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놀라와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익산은 바로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1920년생이시니 아흔 나이에 이르셨습니다. 일찍이 명문 청주상고를 졸업하시고 일본 척식대학에서 수학한 지식인으로서 해방공간에서는 서울에서 건국준비위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미군정에 의해 해산되자 고향으로 내려와 중학교 영어교사 등을 하시던 중, 전쟁시기 북으로 후퇴, 인민군 3사단본부 정치부소속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제대한 뒤에는 함경북도 청진 고등학교 교원으로 계시기도 했습니다. 1958년 통일사업을 위해 남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되어 20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룬 뒤 만기출소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청진에서 떠나올 때 두고 오신 부인 이분선님과 자녀 김호님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 정책으로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빈소를 찾고 교도소 면회를 하고 2차 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을 찾아 뵈었지만 이 모두가 이 땅의 자주와 통일이란 민족적 과제를 한 몸으로 껴안았으며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9년 7월15일 ▌구속노동자후원회 양심수후원회 조사집계

이름	소속	직책 (구속 당시)	사건 명	구속 날짜	수감 지	재판 상황	만기 일
김태수	범한택시노조	대의원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2.13	영등포교1071	기결(10년)	2014년2월
강준희	화물연대 광주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847	미결	
강진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서울15	2년6월	항소중
강 한 수	건설노조 부울경남건설지부	지부장	부산 전기원노동자 파업	20096.28	부산구6041	미결	
권영기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08년6월 건설기계 총파업(제천투쟁)	20089.4	청주교329	기결(1년)	2009년9월3일
김기주	화물연대 광주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1634	미결	
김 달식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6.11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투쟁 관련)	20097.6	대덕경찰서	미결	
김대원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187	미결	
김명호	민교협	전성균관대교수	이른바 "석궁 사건"	2007.1.17	의정부교2068	기결(4년)	2011년1월
김복기	재야	청학연대	이적표현물 사건	20089.27	서울179	10월	항소중
김성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수원302		
김 성천	동작구 정금마을 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161	미결	
김세환	화물연대 포항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3094	미결	
김 완희	화물연대 충남지부	조합원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6.12	대전교1639	미결	
김재호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171	미결	
김 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국장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6.29	평택구213	미결	
김주환	용산구 신계동 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20	미결	
김 중환	화물연대 대경지부	조합원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6.9	대전교2342	미결	
김 태수	범한택시노조	대의원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2.13	영등포교1071	기결(10년)	2014년2월
김태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노동전선)	상황실장	용산 철거민살인진압 항의투쟁	20093.20	서울구65	미결	
김 학주	이주노동자(중국교포)		"국가보안법위반" 건	200510.	전주교2509	기결(5년)	2010년10월
김성천	수원 촛불시민	건설 일용직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	20094.30	수원구305	미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8.28	서울173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8.28	서울89		
노호근	아시아뉴스통신	사회부(차장)	강희락 경찰청장-경기경찰청 간부 회식 취재	20096.9	수원구1306	미결	
레디아(Radia)	이주노동자(아디오피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95	화성보호소	미결	
민철식	촛불연행자모임		용산살인진압규탄집회	20094.21	서울구193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광주교5051	3년6월	2010년8월1일
박 정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망향휴게소노조 연대투쟁(법정구속)	20084.29	마산교1670	기결(1년6월)	2009년8월
박 종구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직부장	6.11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투쟁 관련)	20096.24	포항교3061	미결	
박 종근	건설노조 부울경남건설지부(전기분과)	사무장	부산 전기원노동자 파업	20096.28	부산구6052	미결	
박종만		실업노동자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3/7)	20093.11	서울구7	미결	
백형근	전해투	전 조직국장	08년 용산 철거민 투쟁 연대	20095.27	영등포구2737	미결	
불라마트셀	이주노동자(콩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7.1	화성보호소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대구교45	4년	2010년10월1일
송 복섭	서울동부건설기계지부	조합원	09 건설노조 총파업 현장투쟁	20096.19	여주교2538	미결	
신성원	금속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전 부지회장	07년 경기지역 이젠텍 파업투쟁	200810.12	평택구203	미결	
심상덕	촛불시민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41	미결	
안홍열	학생	대학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86.23	청송제2교1144	1년6월	2010년2월1일
안후진	화물연대 전북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431	미결	
양태조	민주노총	조직실장	뉴코아-이랜드/한미FTA반대 집회 등	20081.7	여주교270	기결(2년)	2010년1월
오순완	재야	국가보안법위반관련		청주구9			
오장석	화물연대 서경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585	미결	
원호연	촛불시민		메이데이/촛불1주년 기념행진	20095.2	서울구195	미결	
유용완	화물연대 전남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1791	미결	
유정희	원일교통노조	해고노동자	원일교통노조 민주화투쟁	20089	영등포구2729	항소중(2년)	
윤기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 한총련 불털퇴(7기)	20082.28	대전으로이감	3년	항소중
윤주형	재야		국가보안법위반관련	20095.10	청주구536		
윤 형 남	노동자	식칼테러희생자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5	서울구57	미결	
이**		전문직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3/7)	20093.23	서울구209	미결	
이강우	화물연대 울산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2750	미결	
이경원	재야	범남본사무처장	국가보안법위반관련	20095.10	서울구63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건설산업연맹)	의장(지도위원)	"국가보안법위반" 건	20095.10	서울구97	미결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20088.7	서울구2467	2년	2010년8월1일
이 대곤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6.11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투쟁 관련)	20096.13	포항교3057	미결	

이름	소속	직책 (구속 당시)	사건 명	구속 날짜	수감 지	재판 상황	만기 일
이동훈	화물연대 충남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 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320	미결	
이 민습	촛불시민(필명-붉은악마)		08년 촛불항쟁(인터넷 게시글)	20096.2	서울구90	미결	
이상호	"인터넷""386 모임"""	대표(사무직)	애국촛불 전국연대공인탄압(서울청 광역수사대)	20096.2	서울구105	미결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위원장	미포조선 용인기업원직복직투쟁/고공농성	20092.9	울산구35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전주교2510	3년	2009년 10월 1일
이종우	"광진성동 촛불""이용이"""		2009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47	미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안동교3010	3년	2009년 10월 1일
이충연	용산4구역 상가 공사철대위	위원장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30	서울구29	미결	
이희만	전국플랜트건설 포항지부	조합원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등	20079.26	포항교3010	기결(1년+1년6월)	2010년 3월
이라즈	이주노동자/이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소송 중)	200512.9	화성보호소	행정소송중	
이진숙		촛불추모집회	20093.7		서울구209		
인태순	전국철거민연합	연시위원	용산철거민 참사 규탄 투쟁	20093.3	서울구241	미결	
임수범	건설기계 광양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 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1594	미결	
임OO	재야	개인	용산추모집회 참가	20093.10	서울구67		
장민경	재야		국가보안법위반관련		청주여자구63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대전4009	7년	2013년 10월 1일
장영희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용산철거민 참사 규탄 투쟁	20094.27	서울구216	미결	
장 재석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6.11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 투쟁 관련)	20096.24	포항교3062	미결	
전 성구	화물연대 대경지부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 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570	미결	
전승욱	전국발전노조	해고노동자	애국촛불 전국연대공인탄압(서울청 광역수사대)	20096.2	서울구137	미결	
전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9.11	특공		
정삼례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용산철거민 참사 규탄 투쟁	20094.27	서울구243	미결	
정영철	재야	개인	친양고무 사건	200812.5	서울153		
정창수	재야	개인	07년 한미FTA 문서공개	200812.19	서울구8750	9월	항소중
조규창	촛불시민	프리랜서 기자	2009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45	미결	
조순동	화물연대 대전지부	지부장	망향휴게소노조 연대투쟁/CJ물류 파업	20084.29	순천교1280	기결(1년6월)	2009년 8월
조익렬	화물연대 부산지부	지부장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 민중대회	20095.18	대전교987	미결	
조인환	성남단대동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145	미결	
조 일찬	건설노조 부울경남건설지부(전기분과)	지회장	부산 전기원 노동자 파업	20096.28	부산구6090	미결	
천춘배	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08년 6월 화물연대 총파업	200810.21	부산교415	기결(1년+8월)	2010년 6월
최국종		실업노동자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2/4)	20092.4	영등포구3458	항소중(3년)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대전3004	3년6월	2010년 3월 1일
최병승	금속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복직 투쟁	20095.16	울산구33		
최은아	재야		국가보안법위반관련	20095.10	서울구221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서울76	2년	항소중
최OO	노동자	일간지 자국장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6	전기통신기본법	10월	항소중
허현무	민주노총	정치국장	2009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109	미결	
형 유서	촛불시민		메이데이/촛불 1주년 기념 행진	20095.2	서울구2132	미결	
홍 효식	충북건설기계지부	조직차장(지회)	09 건설노조 총파업 현장투쟁	20096.15	충주구938	미결	
Zam larkhai	이주노동자/버마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소송 중)	20093.18	화성보호소		

01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규재의장과 이경원사무처장을 면회하고 최은아 선전위원장에게 접견편지를 써보내다. 이날 양심수면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신 박정숙 김선분선생님과 이성근감사님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함께 하다. 이규재의장과 이경원사무처장은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법정투쟁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히다

02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2009년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2009년 한국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체포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고 밝히다. 간담회에서는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 집회규정과 서울광장 봉쇄 등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차별연행과 자의적인 체포 등 과도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다. 앰네스티는 또한 1년간 실천연대 범민련탄압 등 국가보안법 강화, YTN.MBC기자들의 연장과 구금 등 언론 자유 쇠퇴. 용산참사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도 없었다고 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미국 오클라호마 애드몬트시에 있는 오클라호마대학교 신태영교수(정치학박사)가 찾아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다. 신태영교수는 고국에 올 적마다 인권단체들을 방문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해오고 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 검찰청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 규탄 및 전면 재수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체 규명은 없이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공인하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해 줄 것과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을 종결시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03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을 열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중하고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실현을 위한 북미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다.

출소장기수 김수룡선생님께서 지난 5월 23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어 뇌수술을 받으셨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날 퇴원하시어 집에 계시지만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 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국가인권위 위원장(안병욱)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정권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밝히면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다. 성명은 '집회.시위의 개최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며 '공권력을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 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인권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것' 을 촉구하다.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교수 124명으로 구성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이름으로 '이명박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과 연대위에서 민주주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다. 124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에서는 ①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대할 것 ②전직 대통령서거와 관련 검찰수사들에 대한 사과 처벌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 등 기본권보장 등을 요구하다. ③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를 보장할것 등을 요구하다.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공동위원회가 지난 29일 용산4구역 건물에 대해 이뤄진 명도소송 강제집행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용산 철거민, 세입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용산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적극 나설 것과 정부는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이번과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력 철수 등 이에 상응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04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주최로 '안보불안조장하고 군사적 충돌 야기하는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참가자들은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가와 F-15K전투기의 호전적인 훈련장면 공개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명문화

하고 북에 대한 강경한 제재정책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부추겨 안보불안을 확대 조장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다. 이강실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 노수희 범민련 비상대책위원장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등 규탄발언과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주최로 '이명박정부 집권 이후 집시법 적용실태에 대한 문제점 보고대회' 가 열리다. 보고대회에서는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5.6월 두 달 사이 서울역 서울광장 청계광장 대학로 명동 등 서울시내 주요장소 20여 곳에 신고한 집회 수는 같은 의제로 154회, 각장소별 신고로는 200여회가 넘는데 대부분 경찰에서 불허했다고 하다. 집회신고에 대한 경찰의 불허사유로는 야간집회, 장소경합, 공공질서 위협, 주요도로 점유 등 크게 4가지였고 범민련 집회신고는 이적단체라는 사유로 집회신고 접수조차 받지 않았으며 장소경합 사례로 116회까지 이어온 광화문 KT앞 반미연대집회를 117회로 불허하다.

이북관영<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이미 기소된 범죄행위에 따라 미국기자 로라.링과 리승은의 재판을 6월4일 3시에 시작하게 되었다' 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전해투 등이 해고노동자 백현근동지 옥중 단식9일째를 맞아 실형 판결 규탄 및 재소자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다. 이춘배 전해투 위원장 여는 말에 이어 모성용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임채희 맑스사상연구회 부소장의 연대사가 있었음 이어 전해투의 출소 양심수 여우성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구치소에 항의방문하여 장소이동접견을 통해 건강을 염려하여 금식중단을 종용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의원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통치중단하고 국정기조 전환하라고 촉구하다. 원내대표 이정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사과, 강압통치 중단, 내각 총사퇴, 국정운영 쇄신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들끓는 민심에도 귀를 막고 시민을 범죄자로 대하며 일체의 반성도 사과도 변화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에 숨이 막힌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농성에 들어가다. 이날 단식농성돌입 기자회견을 비롯해 이정희 의원 단식농성장 주위로 100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다.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소속 1000여명의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결의대회' 를 열고 서울시에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7.25 잠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다. 서울상용직 지부는 시청과 25개 구청에서 도로 보수, 하수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원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조합원들 국승종 서울상용직지부 지부장은 투쟁 1호 명령 '파업 결의' 를 선언하다.

05

서초동 지방법원 앞에서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범민련 간부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안지중 진보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과 김영재 민노총 통일국장,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 이강실 진보연대 공동의장,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등 발언에 이어 노수희 범민련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구속적부심 방청하기 위해 서울지법 408호 법정으로 가다. 이규재의장 등 3명의 범민련관련자를 만나다. 한편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 구속을 확정하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 갇혀 있는 전 청주통일청년회 소속으로 지난 5월 7일 범민련 지도부의 연행과 압수수색 같은 시간에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연행 구속된 윤주형 전농충북도연맹조직국장과 장민경 6.15남측위 충북본주 지역 집행위원장 오순완 사무처장 등을 면회하다. 이들은 어떤 탄압에도 자주통일운동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다. 서울에서 내려간 범민련선생님들 민가협어머님들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이 나누어 면회하다.

청주시 상당구 철당간 공원에서 범민련과 통일운동단체 탄압 충북대책위 주최로 '국가보안법폐지 공안탄압분쇄 구속자석방을 위한 충북대회' 가 열리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성원과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온 범민련 탄압공대위 소속 회원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사전행사로 충북지역 문예패 '두레' 의 말뚝이춤, 마당극단 '걸판' 의 국가보안법 폐지 마당극, 노래공연 '희망새' 등 문예공연이 있었고 범민련통일운동단체탄압 충북대책위 노영우목사의 대회사. 권

오헌 범민련탄압- 공대위 상임공동대표의 정치발언, 전교조 충북지부 남병우교사. 유초하 충북대교수 등 결의발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보내온 장민경 집행위원장 편지를 낭독하다. 이밖에도 풍선던지기 구속자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 서명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공소장 찢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다.

정동 성공회대성당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4대종교 종단 및 학계 등이 '6.10-6월항쟁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6.10 범국민대회준비위)를 결성하고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다. 대회준비위는 오는 10일 오후 7시 '6월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하고 대회에서 내놓은 요구안들을 확정하다. 4대요구안은 ①대통령사과와국정기조전환 ②강압토치중단과 악법철회 ③부자편향정책중단과 서민살리기 정책시행 ④남북사이 평화적관계 회복 등이다.

2차 송환 희망자, 비전향 장기수 김종하선생님 운명하시어 대구 적십자병원 장례예식장빈소에 문상을 다녀오다. 권오헌 (212호 소식지보심)

06 ----------

광주 망월동 구묘역 이병렬 열사 묘역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민영화반대, 이명박반대"를 외치며 분신한고 이병렬 열사 1주기 추모식 열리다.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를 비롯해 공공노조 조합원들과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활동을 함께 벌이던 이명박 탄핵운동본부 카페 회원, 열사추모사업회 관계자 등 70여명은 광주망월동 고 이병렬 열사 묘역 앞에서 추모식을 갖고 열사정신 정신 계승의 의지를 다지다. 공공노조 김명철 사무처장 이명박 탄핵운동본부 카페 백은종 대표 등의 추도의 변에 이어 열사가 생전에 몸 담고 활동하던 조직과 열사추모연대 임원의 추모사 낭독이 있었음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륙일오편집사 편집국 논설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2차 핵시험에서도 성공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전국 각지 인민들이 이를 열렬히 경축하고 있다"면서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과시한 일대 경사로 경축하는 집회들이 연이어 진행되었다"고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특히 논설원은 "제2차 핵시험 성공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2차 핵실험의 의의를 밝혔다고 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초대의장을 지내셨고 현재 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운동본부 의장을 맡고 계신 강희남목사님께서 6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항쟁을 보라! 민중이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의 6월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치자!'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빈소는 전북대학교 장례예식장에 차렸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고 강희남 목사 약력

1920년 1월13일
전북 김제농가 강학용 공과류성녀의 장남으로 출생
1935년 초등학교 졸업 후 한문수학 및 독학
1935년
정복님과 결혼 후 예수교에 입교하고 슬하에 3남 4녀를 둠
1947년 한국 신학대 입학
1950년 익산에서 중학교 교사 부임
1955년 군산교회에서 목사안수
1963년 전주 성광 교회, 난산교회 등 목회 전념
1977년 1차 투옥(난산 교회 시무 중 박정희에게 도전하다가 전주교도소수감, 고 문익환목사와 수감)
1983년 문익환 목사와 민통련을 창립하고 의장 취임,
기독교 농민회 이사장(4년)
1987년 2차투옥(전북대 강연), 6월 민중항쟁으로 출옥
전두환의 호헌조치 반대 옥중 단식투쟁 전개(40여일)
1990년 범민련 의장
1991년 3차투옥(범민련 관계 인사 32명과 함께 검거)
1994년 4차투옥(7월 김일성 주석 조문 시도 사건)
1996년 5차투옥(조성만열사 장례위원장)
2000년 범민련 의장 사임. 동련방통추, 양키추방 공대위 결성 등을 이끔
2009년 6월6일 저녁7시 25분경 영면

07 ----------

각계사회원로들이 '고 노무현대통령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다. '새날희망연대' 소속 박형규목사 등 50여명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화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노무현대통령서거에 책임지고 이명박대통령사과 ▲일방주의적 정책기조 수정 및 전면적 인적쇄신 단행 ▲4대강 정비사업 등 대형토건사업폐

지 및 민생대책마련 ▲6.15 10.4선언이행 등을 촉구하다

강남 삼성동 봉은사 보우당에서 '불교조계종 민족통일추진본부(민추본) 창립9주년기념대회 및 강연회 가 열리다. 민추본 본부장이며 봉은사 주지스님이신 명진스님의 기념사,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의 축사와 6.15북측위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에서도 축사를 보내오다. 기념식에 이어 정세현 전통일부장관의 특별강연이 있었음. 정 전장관은 오바마정부에 대해 ' 북의 어떤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을 보면서 인수위 때로 돌아가라 '고 촉구하다. 바로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할 것과 이명박정권에 대해서는 6.15 10.4 선언이행의지를 밝히고 대화제의를 해야한다고주장하다.

08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를 기해 화물연대 투쟁승리를 위한 '화물연대 확대간부 1000여명 선파업 돌입' 과 '운수노조 투쟁지침 1호' 를 선포하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권과 자본은 우리를수렁으로 몰아놓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조직의 명운 걸고 결사항전한다" 고 밝히다.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 박해선 의장(숙대 학생회장)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진승모 위원장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강압통치 중단하라!' 고 요구하며 시국 단성농성에 들어가다. 두 대표는 o이명박 대통령 사과 o강압통치 중단 oMB악법 철회 등을 요구하다.

이북관영 <조선중앙통신> 은 이 날자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는 미국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8일까지 진행하였다' 면서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조선민족 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 두사람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 고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서울광장에서 공장조례개정을 위한 서울지역 정당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시청광장 6.10대회 보장 촉구 및 조례개정운동 기자회견' 을 열다. 참가자들은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라' 며 '정부마음대로 열고 닫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면서 서울시와 경찰 당국을 비판하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있는 최규식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 민변 박주민 변호사의 결의발언과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박해선 숙대학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09

동국대 대학 본관 앞에서 동국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 정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남북 상생의 평화체제를 복원하라' 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을 일신하라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과 핵위기 극복을 통한 평화적인 남북 상생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사들로 재구성하라 △집권 여당도 대오각성해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인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요구하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도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적극 지지하고 나서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영공 스님(전 해인사 주지),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위원장), 지원 스님(조계종 전 사회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 시국을 염려하는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을 가지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며 "간곡한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내각 개편, 미디어 관련법 비정규직보호법 등 악법 추진 중단,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성실한이행, 집회 결사의 기본권 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다.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청년회 통일시대 젊은벗 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부산청년희망센터 부경대학교 및 여러 대학의 민주동문회 회원주최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산청년 시국선언' 을 진행하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후퇴를 중단하고,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 앞에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국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국정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사과 △MB 악법 폐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청년실업, 용산참사,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PSI중단과 6.15, 10.4선언 이행 등을 요구하다.

대한문 앞에서 민생민주청년회의 등 정당.종교.시민사회.누리꾼 청년들은 '6월 항쟁 계승,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청년 시국선언' 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을 촉구하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상황이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

게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는 공안정국과 남북 간의 긴장고조로 이 위기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사무실에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학인 513명은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특별검사제 통한 진상규명 △공권력에 의한 치안통치 중단 △언론 등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및 미디어 관련 악법 폐기 △6.15, 10.4선언 계승 및 냉전적 대북정책 즉각 중단 △'편협정치' '보복정치' 국정운영 철회 등을 요구하다.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보기 6월 관람이 있었음 관람하신 분은 김영식 박희성 송세영 이윤선생님 김래곤 박창희 한찬욱회원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사용 불허방침을 밝힌 가운데 6.10대회 개최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다.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원 40여명은 민주당은 소통과 민주의 상징인 광장에서 철야농성을 하여 6.10대회를 사수할 것'이라고 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농성장을 찾아굳건한 연대를 다짐하다. 한편 경찰은 300여 병력을 배치하여 농성물품 진입을 막고 있어 당직자들 및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다.

10 ----------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전국의 변호사.법학교수 875명은 시국선언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수사과정에 대한 사과 △검찰권 행사의 남용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 전환 △소수만을 위한 경제정책. 무모한 개발사업중지 △남북관계 복원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하다.

명동 향린 교회에서 고 강희남목사 통일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주최로 300여 각계인사 장례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고 강희남 목사 통일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진행되다. 이날 아침 전주 전북대병원 빈소에서 발인식을 마치고 서울에도 착하여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날에, 범민련 남측본부 초대의장과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상임의장을 지내며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온 강희남 목사님의 마지막가시는 의식이 애도 속에 진행되다. 황인성 장례위원장 사회로 약력 보고 등에 이어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문규현 오종렬 공동장례위원장, 박창균 목사 등 추도사가 있었고 범민련 북측 본부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재일 재중조선인본부,유럽지역본부,캐나다지역본부,재미본부 등에서 보내온 추도사를 한충목 공동집행위원장이 소개하다. 이어 이기형 민족시인의 조시 낭독,노래극단 희망새의 추도노래,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의 호상인사와 서대일 목사의 묵도가 있은 다음 유족들과 장례위원, 참가자 등 헌화하는 것으로 영결식을마치고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운구하여 노제를 지내다. 이수금 공동장례위원장의 조사,한대련 이원기 의장과 서대현 박해선 의장이 6.10항쟁 22주년 맞이 결의문을 낭독하다. 고인의 유해를 벽제화장장에서 화장하여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의 납골당에 안치하다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준비위 주최로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 열리다.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10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대표,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백승헌 민변대표 등의 6월항쟁 정신계승과 민생 민주 남북관계 파탄낸 이명박 정부 규탄과 MB악법저지 민주주의 사수 결의를 다지다. 참가자들은 노동 농민 학생 여성 학계 언론 등 각계대표와 함께 읽은 결의문에서 o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강압통치 중단 o총체적 국정기조 전환 및 민주 민생. 반인권 악법추진 중단.부자편향 정책 중단,서민정책 시행 o남북간 무력충돌반대. 평화적 관계 회복 등4대 요구안을 밝히다. 1부 행사에이어 2부 행사는 배우 권해효 사회로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다. 행사를 마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시민 24명을 강제연행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창학 주경임 이용준 송지영 소수영 모지희 김호현 모성용 권오헌 임미영 ..등이 함께 하다.

대한 성공회성당에서 (사)6월항쟁계승사업회,민생민주국민회의(준), 시민단체 연석회의 등 공동주최로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이 열리다. 각계인사 4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이해학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대표, 이사장,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찬 전총리, 함세웅 신부 등이 기념사를 하다. 이들은 '6월 항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다시 6월 항쟁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남국관계를 정

상화시키라' 고 결의를 다지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남측본부 명예의장 강희남 목사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 담화를 발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북측본부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투쟁해 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회장 강희남 목사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명박 역도의 천추에 용납못할 죄악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고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11 ----------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용산철거민 참사 진사규명, 책임자처벌, MB악법 저지를 위한 부산시국회의' (이하 시국회의) 소속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6월항쟁 부산시민기념대회 해산과정에서 있었던 폭력적 연행을 규탄하다. 통일시대 젊은벗 유하영 대표의 규탄 발언에 이어 참가자들은 부산여성단체연합 유영란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행된 23명 대부분이 인도상에서 경찰에 항의하다 잡혀갔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며,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민들을 향해 불법적 폭력연행과 공권력을 남용했다" 고 주장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0 단독) 에서 모성용부회장의 07년 광우병촛불관련 국민토성 운반차량건 재판에서 증거자료 채택하여 7월23일 11시에 재판일정이 정해지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21차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리다. 안건으로는 집 건축관련, 회원배가운동과 소모임 활성화관련, 운영위원이 의무적으로 결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당면 문제들 관련, 홈페이지 개선문제 등 심의토의하고 재정보고와 다음 안건 채택과 7월운영위 날짜와 정하고 마치다. 김호현, 안병길, 김혜순, 소수영, 임미영, 모성용, 김동원 참석하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58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에서 6.10항쟁 관련 민주주의 인권유린, 남북관계파탄 규탄 발언.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인권,양심수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함.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실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접촉이 10일에 이어 진행되다. 기조발언에서 남측은 '억류 중인 유씨 문제' '한반도 정세' '출입제한 철회'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북측은 변화된 남북관계와 현실조건에 맞게 개성공단 특혜재검토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1단계 100만평에 대해 토지임대료 5억달러,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 연간 임금 인상률은 10~20%로 하자' 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통일부가 밝히다.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주최로 '6.15남북 정상회담 9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가 <6.15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 경제를 살리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자' 고 역설하다. 이밖에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주역이던 임동원 전통일부장관, 박지원의원, 문정인교수 등도 이명박 정부에 6.15공동선언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고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대신해서 백낙청 6.15남측위 고문이 축사를 하다. 참가자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결의문' 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공동성명을,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6.15, 10.4 선언이행을 촉구하다.

12 ----------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고 주명순 선생님 10주기를 맞아 김포 대곳면에 있는 선생 묘소에서 조촐한 추도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인과 함께 통일운동을 하셨던 박정숙.김선분 범민련 남측본부고문, 원진욱 사무차장, 고인의 따님이고 양심수후원회 회원인 박윤경님,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함께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온 제물을 차려놓고 제주인 따님이 첫잔을 올리고 재배한 다음 원진욱 사무차장이 약력소개, 김선분 선생님과 권오헌이 회상과 추도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명순 선생님은 1923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를 마친 뒤 회령에 있는 유신탄광 등에서 노동을 하시다가 1941년 일제의 강제동원에 반대, 만주일대를 옮겨 생활하시던 중 조국해방을 맞아 조국에 돌아와 민주청년동맹,여성동맹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셨습니다. 1950년대 인천에서 세계통신사기자로, 1951~58년 사이 사회 진보운동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3년 6월 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4.19 혁명 뒤 운동을 하셨고 이후 고 박남업(경성의전졸업-서울 평양 등지에서 내과의사로 의료사업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0년 옥고를 치루심)선생과 결혼. 신설동에서 대양의원 응암동에서 자혜의원을 개업하시다가 1975년 이른바 '오작교' 사건에 연루, 부군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부군 5년, 선생님은 3년6월 선고를 받고 복역하셨습니다. 1989년 부군 박남업 선생님이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선생님

은 1990년 이후 범민련에 가입 통일운동에 헌신하셨으며 1995년 11월 29일 범민련 대탄압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1996년 3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피선활동 중 1998년 6월 13일 여러 차례 옥고의 후유증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양심수후원회가 발족하자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온 성원을 다해주셨고 1993년 이종환선생님께서 43년 만에 출소하시자 무연고 장기구금양심수 머물 곳 마련의 양심수후원회사업에 공명하시어 30,000,000원을 내놓으시어 봉천 11동에 두 번째 '만남의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3 ----------

서울 미대사관 인근 한국통신(KT) 앞에서 민주노총이 6.15 공동선언 발표 9주년을맞아 한.미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는 MB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 위에서 경기북부진보연대 평통사 및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미선, 효순 7주기 추모제'가 열리다. 김경호 예수살기 목사 사회로 진행된 추모제에서는 윤한탁 경기북부진보연대 상임대표 심미선양의 언니가 다니던 의정부여고 심우근 선생님 주병준 무건리훈련장반대주민대책위위원장 원불교 정상덕교무의 추모사와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의 편지 낭독이 있은 다음 배종열 평통사 상임대표의 추모비 건립추진 경과 보고 박석분 평통사 회원사업팀장의 추모비건립사업의 현황보고 후 오신 분들의 헌화순서로 추모제를 마치다. 모성용 나정옥 김성환 임미영 함께 하다.

1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북의 2차 핵실험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제재하는 '결의 1874호(이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결의는 "2009년 5월 25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써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condemn)한다며 1718호에 비해 더욱 강력한 내용의 무기 금수.화물검색.금융 재정제재를 골자로 하는 전문과 34개항으로 이루어지다 (후원회소식지 212호 보심)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배격하고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라고 규정하며 3가지 대응조치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먼저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이 재처리되었다"고 하다. 지난 4.13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대응해 4.14 외무성 성명에서 발표한 대로 영변 핵시설 재처리 작업이 진행 중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외무성은 또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고 선언하다.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 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고 끝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선언했다고 하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민주노총, 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주최로 노동자.학생.시민사회단체 성원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6.15공동선언 9주년을 맞아 6.15자주통일문화제 '하나'가 열리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1부 행사에는 노래패 '소리타래'와 춤패 '출' 등의 공연이 펼쳐지다. 또 전국순회일정을 마친 민주노총 10기 6.15자주통일선봉대원 30여명이 한반도기와 광대복장을 하고 율동공연을 많은 박수를 받다. 2부 행사는 '반공할아버지'가 금강산에서 북녘 처녀와 사랑에 빠진 손자를 계기로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마당극의 '내 사랑 평양' 공연은 대동놀이로 이어지고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철수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민주수호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주최로 '민주회복. 국민광장. 경찰폭력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고 지난 10일 범국민대회해산과저에서 자행된 경찰폭력행패를 사례별로 공개하면서 강희락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하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지선활동가, <칼라 티브이>김승현리포터,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진보연대 이강실대표 민변 박주민변호사 고대녀 김지윤씨 등 발언이 이어지다. 천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여러 문예공연이 진행되다.

15 ----------

광화문 통일부 청사 인근에서 범민련남측본부, 평통사.양심수후원회. 한청(준) 등 인권통일.빈민.청년학생 14개 단체 공동주최로 전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15대회'에 참가자들이 합류한 가운데 '자주통일.평화와 번영을 위한 6.15-10.4선언 이행 운동기간 선포식'을 열다. 김명섭 범민련 서울연합 사무처장의사회로 범민련 비대위 노수희 위원장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 한양대총학생회장 등의 결의발언과 남북해외 공

동사무국 범민련 북측본부도 연대사낭독이 있었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선포문 낭독에 이어 세 어린이가 6.15공동선언 전문을 차례대로 낭독하고 마치다.

장충체육관에서 학생.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관계자 등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다시, 6.15'' 가 열리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가 대회사에 이어 이석태 전 민변 회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의 축사 한국진보연대 이강실상임대표 등의 연대사가 있었음 이날 행사에는 남북해외 '6.15공동위' 의 공동명의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6.15남측본부' 여성본부 남윤인순 상임대표의 호소문낭독이 있었음 가수 이안의 공연과 인천지역 어린이들과 6.15여성본부 소속 회원들의 6.15공동선언 낭독 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2,500여 명은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하다. 마치고 동대문운동장까지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의 불허로 체육관 앞에서 이명박정권규탄집회를 열고 자진해산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8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이희철 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빙고역 근처에서 5명의 광주 보안 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것과 관련 6.15청학연대주최로 '이희철 8기한총련의장 연행 이명박정권 규탄 기자회견 '이 열리다 김도윤 6.15 남측위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희재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의 경과보고와 규탄발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정우수 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기자회견에 참가한 통일.인권단체 및 학생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노수희 범민련비상대책위원장이 읽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운동이 강화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희철 8기 한총련 의장을 비롯한 청년학생들에 대한 수배와 검거를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가' 등을 부르며 이 의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감옥을 형상화한 모형물을 선보이기도 하다.

16

명동 향린교회에서 6.15공동선언9돌을 맞아 '남북관계복원. 전쟁반대. 평화실현.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자주통일원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다. 273명의 통일원로 이름으로 50여명이 모인가운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소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다. 선언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폐악정치를 중단 6.15 10.4선언이행 외세공조중단하고 민족공조실천 MB악법폐기 독재정치중단 등을 촉구하다.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연대(준)과 '평통사'공동으로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정대연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정종권 진보신당부대표 등 규탄발언과 평화재향군인회 김기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기자회견문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라고주장하다.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려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447인 시국선언' 이 진행됐다. 이날 조계종 시국선언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교육원장인 청화스님을 비롯해 전국 25개 모든 교구 스님들이 참가했으며, 81명 중앙종회 의원 중 42명이 참석해 불교계를 대표했다. 법타스님(전 은해사 주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법안스님 등의 이명박정권규탄발언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스님이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한 사과 및 사정기관의 공정성 확보, 중립화를 위한 제도 개혁 △표현과 집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용산참사의 책임 있는 해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한 국민 통합 △4대강 살리기 및 각종 문화재파괴행위 일체 중단△자연공원법 개악 즉각 중지 △대북강경노선 철회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확보에 진력할 것 등을 요구하다.

6.15공동선언 9돌을 맞아 이북의 언론 매체들이 <로동신문>은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혀준 불멸의 기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발표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위대한 승리의 기치" 라고 그 의의를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신문은 세 가지로 의의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진단하다. 첫째, 6.15공동선언에는 민족자주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 구현되어있다. 둘째, 6.15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요구가 반영되어있다. 셋째, 6.15공동선언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놓으려는 온 겨레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다.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관으로 천주교 사제 1,178명은 시국선언과 동시에 용산참사 현장에서 연 시국미사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공적인 것은 바로 국민의 것이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다.

17 ----------

서산 부석사 인근에 귀농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박근직 김봉례님 댁에 김영식, 박희성선생님 모시고 모성용 나정옥 회원이 함께 농번기 일을 거들어 드리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5일발에서 "15일 김일성광장에서는 미제의 사촉 하에 조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규탄 배격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하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 비서의 연설을 시작으로 당, 군, 노동계급,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등 각 계층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다고 전하다. 또한 6.15공동선언 발표9돌 기념중앙보고회가 열렸다고 하다.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피해자 9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꾀하며 제정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 장준하 선생과 함께 '긴급조치 제1호'의 첫 번째 위반자로 체포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장준하 선생의 장남 호권(60)씨 이봉래(75)씨 현대건설에 근무했던 한봉석(64)씨 남북평화재단의 이사장인 박형규 목사의 아들 박종렬(62) 씨등이 함께 한 가운데 '긴급조치변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석태 변호사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아직 법률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이것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들의 이름으로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말하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심수후원회 등 9개 단체 공동으로 주최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가운데 침략적한미동맹을 영구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17차 반미연대집회'를 열다.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이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유영재평통사미군문제팀장 오혜란 평화군축팀장 등 규탄발언과 대북제재반대와 대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대학생 '다함께'조익진 활동가의 아프칸재파병 음모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한.미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미 정상이 이번 선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등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지력' 개념을 담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9.19공동성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다.

종로구 안국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사.약사.간호사.한의사.보건의료계종사.노동자 등 2,289명 이름으로 '민주주의수호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독재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교 요구하다. 또한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반민주적 정책중단과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다.

18 ----------

광화문 조선일보사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최로 '소비자 매수하고 시장질서 유린하는 조.중.동 불법경품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의 사례발표에 이어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와 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있었음

서초동 법원 앞에서 석궁사건 진상규명과 김명호교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석궁사건 증거조작규탄 및 혈흔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성균관대학 수학과 김명호 교수의 이른바 '석궁사건'에서 증거조작과 불법적인 재판진행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날 첫 재판이 열림에 따라 사건 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기자회견을 갖게되다. 이광렬 대책위집행위원장 사회로 김세균 민교협공동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이창수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공동대표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사법개혁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결의 발언과 홍성학 대책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 19민사부에서 첫재판이 열렸으나 재판부가 소송제기를 기각하고 김명호교수는 재판부기피신청을 하다.

미국워싱턴에서 16일 (현지시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보장을 담은 이른바 '한미동맹을 위한 미래비전'을 채택하다 '한미동맹미래비전'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통일' '북한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다.

-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양심수 면회를 하다. 범민련탄압관련 구속된 최은아님과 용산참사관련 전철연의 장영희님과 지난 5월에 시청 앞 민주광장시수 촛불관련으로 구속된 김현수회원을 면회했음. 박희성 선생님 김호현, 모성용, 임미영 함께하다.

19

-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은 <조중동>의 불법경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15일과 16일, 양 일간에 걸쳐 서울 지역 4개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각각 30개(총 1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문시장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를 매수하고 시장질서 유린하는 조중동 불법경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문고시가 폐지또는 무력화된다면 조중동의 소비자 매수 행위는 그야말로 고삐가 풀리게 되고 시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나아가 '금력'을 동원한 조중동의 신문시장 장악과 이로 인한 여론독점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759회 민가협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한미정상회담 내용규탄발언 서경순전 상임의장의 용산참사관련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박용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직실장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 이후 명동에서 벌어졌던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의 충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 감금했다는 혐의로 .지난 15일 오전 집 앞에서 강제연행 되어 구속되자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3일 공무원 조직 통합 선언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실장을 이례적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가며 과도하게 수사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분열, 탄압 책동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다. 박용석 실장은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이 공사중인 관계로 중부경찰서에 구금 중이다.

-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민주노동.창조한국.진보신당 등 야4당과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환경운동단체들을 비롯한 4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대책위)를 결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결성취지를 밝히며 모든 정당이, 모든 조직체가, 모든 종교단체가 뜻을 합해서, 눈앞의 단기간의 이익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 모였으니 아직 동참하지 않은 곳도 앞으로의 세대에 죽음을 선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선사하게 위해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하다.

- 대법원은 지난 11일 KAL858기 사건 관련 소설<배후>의 저자 서현우(본명 서현필)와 도서출판 창해 전형배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최종 확정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소설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설을 집필, 출간한 행위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 규명이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항소심 결과를 인용하다.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16일~18일 사흘간 진행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9.0%로 '쟁위행위'가 가결되었다고 밝히다.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2,890명 중에서 2,547(88.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11명이 파업에 찬성한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부분파업, 준법투쟁 등 다양한 쟁의 전술을 준비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의 핵심은 '반송선 무인시스템 폐지와 필요인력 신규채용'과 이 외에도 △10% 인력감축안 등 무분별한 구조조정 중단 △부산시 공무원 파견(겸임) 중단 △부산지하철 사회공공성 강화(시민안전 및 건강권 확보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해소) △해고자 원직 복직 △임금 3% 인상 △각종 노동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등의 요구를 제시하다.

- 국회 본청 앞에서 야4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국민여론 무시, 언론악법 강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민주노동.창조한국.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야4당 대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등은 규탄발언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어느 시기까지 관철되지 않으면 퇴진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용산참사15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직접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통령의 사과△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수용 △희생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뉴타운재개발 관련 법.제도 대폭 개선 △구속된 철거민 석방 및 전철연.범대위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다. 권오헌모성용 임미영함께 하다.

대방동 여성플라장서 열린 우리겨레하나돕기 후원회가 열려 권오헌김호현 참가하다.

20

재일 <조선신보>는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전 10권으로 된『한자말대사전』을 편찬하여 내놓았다"고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신문은 "수백 종의 국내외 고전문헌들과 각종 사전, 자전들에서 뽑아낸 한자의 올림자는 2만 4263자, 한자 어휘의 올림말은 28만 4300개에 이른다"고 그 방대함을 소개했다. 신문은 이처럼 오랜 시일이 걸린 한 실례로 "『리조실록』,『팔만대장경』,『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수백 종의 민족고전들에서 올림자와 올림말의 용례를 선정하여 150여만 매의 카드를 작성하는 데만도 8년이라는 시일이 걸렸다"고 알렸다. 이어, 신문은 "『한자말대사전』은 조선식 한자 어휘뿐 아니라 사용빈도수가 높은 고한문 어휘와 자연과 사회의 여러 분야의 전문용어, 고유명사, 종교어휘, 인명, 지명, 책명 등 광범한 어휘들을 수록하였다"며 분량의 방대성과 내용의 풍부성을 자랑했다.

명륜동 민가협 사무실에서 민가협운영위원회를 열다. 김호현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처음으로 민가협 공동의장으로 참석했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참관인으로 함께 하다. 주요활동과 재정보고 와 안건으로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토의하다.

미대사관 인근 한국통신(KT) 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미래비전' 선언의폐기를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정리하자면 국가 주권을 미국에게 갖다 바친 사대외교요, 동족을 압살하자며 외세에 빌붙은 반역외교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전쟁외교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흡수통일론이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며 "한.미 정상이 만나 흡수통일을 떠들고 있는 것은 결국 한.미가 합작해 북한을 고립, 압살하겠다고 공개 선포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비판하다.

미국 군 당국이 미사일 또는 핵관련 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북 국적선 '강남호'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8일(현지시간)보도하다. '강남호'는 17일 이북항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다. 미국군함의 이같은 추적은 지난 12일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 따른 것이라고 하다.

로버트.게이츠 미국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정부는 이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요격미사일과 레이더망을 하와이로 이동해온 상태라고 밝히다. 그는 TMAAD(고고도방어체계)미사일을 하와이로 다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며 SBX(해상배치X밴드레이더)도 지원.제공하기 위해 하와이로 배치했다'고 밝히다. TMAAD(고고도방어체계)는 대기권으로 진압한 전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SBX는 최첨단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갖춘 요격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SBX는 최첨단 탄도미사일 추적장치로 4800킬로미터 떨어진 야구장의 야구공까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전국 대학 104명 법학 교수들이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 파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 제작자들에 대한 기소처분의 즉각 취소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 및 공개위협 중단 △미네르바 박대성에 대한 항소 취하 △용산참사 수사기록 즉각 공개 등을 요구하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2차 실무회담(접촉)을 보도하면서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유지를 바란다면 우리(북측)가 제기한 문제들과 혁신적인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특히 통신은 "남측이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실무접촉 앞에 난관을 조성하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며 계약 개정과 상관이 없는 문제를 들고 나와 복잡성을 조성하는 데 추궁하고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문제 토의에 성실하게 나올 것을 언급했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안들이 다른 나라와 남측 경제특구들의 경우를 충분히 참작하고 특히는 개성공업지구가 가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이날 남측이 제시한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제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하다.

21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오바마 미 대통

령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그려낸 조선반도의 미래는 북반부에 현존하는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조선신보는 '자위적 핵억제력론의 정당성 반증한 워싱턴 회담'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회담을 통해 합의된 '비전'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것을 지목해 지난 2000년의 북미공동코뮈니케의 "합의정신까지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6.15(공동선언)에 의한 변화란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천명과 이에 기초한 연방,연합제 통일의 지향"이라고 조선신보는 설명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강변술은 교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인상밖에 주지못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다.

22 ----------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용산참사' 유족들이 연좌농성에 돌입하다. 추모대회 후 경찰과 실랑이 도중에 □ 이상림 씨의 영정사진 액자가 부서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족들 주변에 있던 30여 명의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300여 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투입했고 참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3명이 연행돼 중랑 경찰서로 옮겨졌고, □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씨가 실신해 용산 중앙대병원으로 이송되고 단식 농성 중이던 전종훈 신부가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다.

23 ----------

부산에서 민주노동당제1차 1박2일간 정책당대회의 대의원대회가 열리다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운동을 공식 결의하다. 결의문에서는 전직대통령 서거까지 몰고온 이명박독재정권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위기 속에 우리 삶은 끝없이 무너져간다 '며 국민과 함께 이명박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다.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6월산행의 날-모두 11명이 불암산으로 오르기위해 당고개역에 모인11명의 회원들이 현대아파트단지 서북능선을 거쳐 불암산정상(508미터)에 오르다. 그런데 정상부근 바위길에 나무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이날도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었음 가파fms 바위를 손톱만으로 오르는 등산묘미를 잃게 되었음. 모두들 정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내려올 때는 동남부암벽을 200미터 쯤 내려와 점심을 먹고 지난6.12일 유엔대북제재와 16일 한미정상회담 내용으로 정세보고와 의견 나눔시간을 갖다. 다시 하산길에 나서 불암산 정상과 봉화대사이 짤룩고개까지 내려와 서쪽계곡-상계역 방면으로 내려오다. 정암사를 거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근 후 이날 산행을 마침

24 ----------

쌍용자동차가 1,100여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우편으로 통보한다고 밝히다. 홍보2팀 차장은 "가정통신문을 오늘 발송할 것이며, 3일 정리해고 명단을 노조에 팩스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통신문은 정리해고 통보로 지난달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노동부에 신고한 2,405명 중 희망퇴직자를 제외하고 1,100여명을 정리해고 통보한다고 덧붙이다. 노조는 "정리해고 통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면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고 통지서를 노조에 제출. 6일까지 취합해 집단적으로 소각할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사측의 직장폐쇄에도 조합원들이 분열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지에 사측은 겁을 먹고 앞당겨 명단을 발표했다."고 해석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인사 2009명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다. 참가자들은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후퇴와 농업농민말살정책 중단 6.15, 10.4선언 이행과 현 정부 들어 중단 된 대북 쌀 지원을 재계를 촉구하고 △한.미FTA 중단 △기업농중심이아닌 중소규모 가족농중심으로 농업정책 전환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전쟁도발자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벼라'란 기사에서 '우리의 핵실험과 핵억지력 보유는 미국의 대조선압살. 핵전쟁 책동에 대응한 정당방위적인 자위권 행사였다'며 '우리나라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이상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대해야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또한 신문은 '미국집권자가 <핵없는 세계>를 재창하면서도 남조선에 <확장억지력>을 언약한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떠들면서 우리더러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난하다.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정부의 대북특사파견'을 요구하며 '민주당차원의 방북대표단 파견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다. 정대표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원칙 무대책 무책임 등 3무대책'이라고 비난하고 ▲강경대북정책전면수정 ▲ 6.15 10.4선언이행 ▲대북특사통한고위급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13개 지역본부는 국가정보원이 615남측위 부산본부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다. 지난 17일 국정원은 부산본부 이정이 상임대표와 김영진 공동대표를 비롯 실무자 2명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국정원 부산지부로 출석토록 했었음 이는 6159주년기념행사에서 6.15북측위 해외위에서 보내온 축사를 낭독한 혐의라고 하다.

후원회소식 212호 최종 교정본을 충무로 창미디어에 넘기다.

서울구치소로 범민련이경원 사무처장을 면회하다. 김호현 회장, 김길자, 김혜순 운영위원 함께 하다.

25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 앞에서 민주넷은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등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민주넷)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찰폭력 인권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다. 시민사회단체, 제1기동단 해체 및 부대 식별 표시. 이름표 부착 요구 민주넷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홈페이지(http://minju.jinbo.net)에 접수된 경찰의 폭력 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삼았다. 또 경찰폭력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 증언을 취합해 인권유린 사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민주넷은 경찰 당국에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의 해체 △경찰폭력 방지를 위한 전경부대 식별 표시 및 이름표부착 등을 요구하다.

충무로 창미디어에서 후원회 소식 212호 최종교정본을 하여 넘기다. 권오헌 임미영

사단법인 통일맞이(이사장 김상근)는 제14회 늦봄 통일상 수상자로 민족분단의 현실에 직면해 통일문제를 신학의 주제로 삼고 이를 대표적인 한국신학으로 이론화, '통일신학'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순경(8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고문이 선정되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4인의 후보를 늦봄 통일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희선)에 수상후보로 제출하여 지난 3일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박순경 상임고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다. 박순경 실천연대 상임고문은 1923년 생으로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신학의 수립을 통해 한국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통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학계대표로 활약했다. 그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한국사회와 기독교계를 '양성평등적 여남공동체'로 변혁시키는데 이바지한 여성 신학자였으며, 기독교 신학자라는 울타리를 넘어 통일사회 운동가와 이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26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가족대책위,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쌍용차공투본)' 등이 정부에 노정교섭과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쌍용차공투본 공동대표인 이홍우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도영호 경기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정아 가족대책위 대표등은 발언을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이 22조 원에 육박하는 것을 들어 이중 단 1조 원만 쌍용자동차에 공적자금으로 투입한다면 쌍용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그 가족들 등 20만 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김용한 쌍용차공투본 공동대표와 이정아 가족대책위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다.

쌍용자동차 관리자 1,500여명이 오전8시15분부터 정문, 후문을 막고, 용역업체 직원 300여명까지 동원해 연대대오를 '외부인'이라 규정하며 출입을 막고 나서고 경찰병력도 평택공장에 모여들다. 사측은 2차례에 걸친 노조와의 대화자리에서 '관제데모, 공장진입 시도'와 같이 노동자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리자들과 비해고자들의 집회가 다시 시작됐다. 평택공장 안은 인터넷이 끊어졌고, 사측은 라면, 비상약 등의 반입을 금지시키고 공장 주변엔 30~40개의 천막까지 설치해 평택공장의 고립을 시도하다. 관리자들은 아침부터 절단기를 들고와 철조망을 자르고 정문 옆 주차장으로 진입했고, 후문, 4초소 입구, 정문 주차장에서 '조업 재개' 구호를 외쳐대다. 노조는 노사 대화가 진행 중인데 사측이 대화로 손을 내밀면서 노조의 뺨을 때리고 있다며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쌍용차사태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는 길 뿐"이라고 단언하다.

미국이 이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정해서 항공모함 '조지.위싱턴' 호를 위시한 <항모타격단>을 이북인근해역으로 배치했다고 미국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터너라디오 네트워크(FRN) 가 보도하다. '조지워싱턴' 호는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축구장 3배크기의 비행갑판에 슈터.

호넷(FIA -18EC)과 호넷과 호넷(FIA18A/C)전투기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2000)등 항공기 60~70대를 탑재한것으로 알려지다.

현인택통일부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한나라당 구상권의원실이 주최한 '북핵문제전망과 해법' 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행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ate. Verit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추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여 부시정권이후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05년 9.19공동성명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주장을 다시꺼내 논란을빚고 있음. 이는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이 평가하다. 현인택장관은 또한 ><비핵.개방3000구상> 도 다시 주장하다.

이북의 언론매체< 우리민족끼리>< 민주조선> 등은 최근 이명박정부와 미국의 대북군사훈련 및 전력배치와 관련 '조선반도 정세는 더 한층 격화되어 전쟁의 문어귀에 접근하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초긴장상태가 조성됐다' 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는 지난 16~17일 사이 동해 인근해상에서 1500톤급 호위함 1000톤급 초계함 잠수함 등 함정 10여척과 링스 대잠해군기 등을 동원 '적도발에 대한 대응절차를 숙달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고 18일에는 강원도 중,서부전선 포병훈련장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를 동원한 기동사격훈련을 실시했고 미국 또한 지난달 31일 F-22랩터 전투기 12대를 일본 오키나와 남부 가네나 공군기지에 전격 배치했으며 최근엔 항공모함 ' 조지. 워싱턴 '호가 이끄는 항모타격단을 이북인근에 배치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다. 이와 관련< 민주조선>은 ' 미국이 우리공화국에 대한 협박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혀가고 있다 '면서 이미 정치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적용한 미국이 군사적 방법에 의거한 물리적인 대북압박공세까지 덧장치고 있다' 고 했으며 <우리민족끼리 >도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반역패당은 그 출로를 상투적 수법 그대로 알팍한 북침전쟁도발책동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며 '반공화국 적대감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여 민심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려보려하고 있다' 고 비난하다.

27

이날 새벽 검정색과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이른바 국민운동본부와 고엽제전우회회원 50여명이 고 노무현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덕수궁앞 시민분향소를 마구 짓부수어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이들은 고인의 영정까지 가져갔으며 주변에 경찰이 있었지만 방치하고 있었으며 오후에는 서울 중구청이 경찰 9개중대 호위 속에 직원30명을 동원 보수단체들이 짓밟은 분향소 잔해물을 모두 치우다. 또한 이를 항의하던 시민 5명을 경찰은 강제연행하다.

영등포구치소에 갇혀있는 전해투의 백형근님을 면회하다. 재판을 앞두고 재판준비상황과 변호사접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김영익님을 면회하다.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 강성철구노회 간사 모성용 임미영 함께 하다.

여의도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힘내라! 민주주주의. 사회연대와 희망을 위한 여의도콘서트' 가 열리다. 20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노정렬씨 사회로 임성규 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노래패 '꽃다리' '우리나라' 의 합창곡을 비롯하여 윤도현밴드 안치환 크라잉넛 장기화원 얼굴들 잡리스등이 출연하여 공연을 이어나가다. 노래공연 중간마다 '우리반 반장 임영박' '미래4년 고난 등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패러디한 각종영상이 상영되어 환호를 받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까지 합법적인 남북교류를 가장해 금강산과 중국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접촉, 지령을 받고 이를 국내에 전파, 실행하고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받아들여 우리 사회를 '미국에 종속된 신식민지' 로 규정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혐의를 포함시키다.

오산 수정동 강제철거반대투쟁으로 지난 05년 6월에 구속되어 갇혀 있다가 4년의 형기를 마치고 안동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는 전철연 정창윤동지 출소환영식에 다녀오다. 오랜 감옥 생활동안 여러 번 단식투쟁으로 소내처우개선과 감옥의 불합리한 행정과 인권침해에 맞서왔던 정창윤동지의 출소를 진심으로 환영하다. 이날 환영식을 마치고 이른바 일심화관련 양심수 이진강동지를 면회하다. 구노회 전철연 성원모성용 함께 하다.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는 검찰의 '범민련 기소'를 규탄하는 '통일운동 탄압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는 범민련 인사 구속기소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다. 이강실 진보연대 대표의 여는 말 권오

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조용선변호사민노당 이영순최고위원의 규탄발언에 이어 노수희 서울범민련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교들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시국선언을 하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문제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다. 특히 "정부에서는 일제고사를 통해 아이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줄 세우고 있다. 교대협은 정부와 여당에 △현 시국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전면적 국정쇄신 단행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선언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법권 독립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철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폐기 및 교육재정 GDP(국내총생산) 대비 6%확보 등을 요구하다.

28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소식 제 212호 발송작업을 하다. 지난 6월에 출소한 촛불관련 양심수 열혈국민 김동완님이 인사차 방문하여 발송작업에 함께 하다. 박희성선생님 김재현, 박윤경, 김동완, 모성용 임미영 함께 작업하다.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1세기 민족주의 포럼(대표정해랑) 창립1주년 특별강연으로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의 '민족과민족주의 그 재생적 담론' 이란 주제로 발표가 있었음 정교수는 먼저 '민족문제에서 발생론-존재론-민족개념정립으로 잇고 있는 데 민족개념은 ' 일정한 지역에서 장시간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써 혈연.언어.경제.문화.지역 등을 공유하고 공속의식에 따라 결합된 초대단위의 인간공동체로서 사회역사적 실체'라고 하다' 민족주의'도시원론과 전개론 유영화 기능론 등을 설명하면서 그 정의를 ' 민족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과 민족수호의지 및 발전지향을 추구하는 민족의 이념적 표상으로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체화된 이념이고 의식구조이며 구체적 생활모습이라고 하다

이북의 <로동신문 >은 25일자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자' 에서 "조국해방전쟁(6.25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땅에는 아직까지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전쟁의 위험은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고 한 보도를 연합뉴스가 전하다. 사설은 "오늘의 엄혹한 정세 하에서 애국애족의 마음을 지닌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기를 이어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재난을 강요하는 저주로운 침략자미제를 반대하는 애국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하다. 그러면서 사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첫째 '선군을 민족수호의 보검으로, 애국애족의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갈 것' , 둘째 '온 민족이 반전평화수호투쟁의 세찬 불길을 지펴 올릴 것' , 셋째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갈 것' 등을 들었다.

이북의 <로동신문> 은 '백악관 장미원에서의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 이명박역도의 미국행각평찰' 이란 제목의 논평원 글을 실었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논평원글은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침략적 결탁을 강화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핵모략책동에 더욱 광분하기 위한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 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한미동맹비전' '우리의 핵억제력문제' 이른바 '보상문제' '확장억지력명문화' 5자회담제의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통일' '개성공업지구실무접촉문제' 등 한미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격렬하게 비판하다.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홍대 총학생회와 민주동문회, 소풍, 민노당 마포구 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 서총련 의장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2006년 서총련 의장이었던 김하얀 29) 씨가 24일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가보안법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과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김 씨의 집에서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압수해 갔다.

29

최근 공안사범의 검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공안사범' 검거를 위해 전담반을 꾸리는 등 사전계획을 수립, 집중수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세계일보>는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4월 2일 경찰청 보안국은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 계획' 을 수립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중수사는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위해 사범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구치소에 양심적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오정민님을 미처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마침 구치소에서 만나게 된 오정민

님의 부친과 함께 더위 중에 구치소 생활과 이감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박희성선생님 모성용 임미영 함께 하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비정규직 개악 반대"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있는 것을 비난하고 쌍용자동차의 노동자가 대량정리해고 상황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생긴지 22년 만에 최저임금을 삭감 시행을 위한 비정규직법안 개악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다.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량징계 방침에 대해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 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히다.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회와 농성, 대규모 선전활동, 안병만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알렸다. 교과부는 교사시국선언을 이끈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집행위원회 및 시도 지부장과 시도 지부 전임자 등 88명을 해임정직 처분을 하겠다고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100여 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 라면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 반박하다.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충북지역 대책위 소속 43개 단체 회원들이 검찰의 청주통일청년회 이적단체 규정 규탄과 구속자 3명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선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노영우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충북지역 범시민 대책위 상임대표는 여는 말에 이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조순형 전도사의 규탄발언이 있은 다음 청주통일청년회 송영현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국방부가 지난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0' 을 수정한 '국방계획 기본계획 0920' 을 발표하다. 이상희 국장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0920' 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능력을 재평가해서 이에 필요한 소요전력을 확보토록 했다"고 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도서방어부대 규모를 800여명 증편했으며, 상륙작전능력은 차기 상륙돌격장갑차, 기동헬기 등을 전력화하여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충하고 예비군 정예화와 규모를 185만여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상비전력을 합쳐 236만의 전투병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히다.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주최로 '2009 유엔고문피해자지원의 날 ' 기념대회가 열리다. 강용주 가정의학전문의 사회로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여는 말에 이어 피해자이야기로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김약기씨의 사례발표가 있었고 이어 용인정신병원 진범수 정신과 전문의와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내과전문의의 고문피해자연구전문가 발표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이영 민가협상임의장의 ' 2009년 유엔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는 우리의 선언' 을 낭독하다.

용산참사현장농성 진보연대 담당일에 양심수후원회에서 모성용 임미영 권오헌 오후부터 농성에 합류하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용산참사희생자들을 위한 시국미사봉헌에도 함께 하다 이날 생명평화시국미사는 사제단소속 예수살이 공동체 주관으로 전례가 행해지다. 특이한 것은 전례의 제 2독서에서 성경글이 아닐 안중근의사의 자서전중의 한 부분으로 택하여 하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개회강행에 맞춰 야4당과 500여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주최로 국회본청 계단에서 '단독국회 규탄 언론탄압 비정규악법저지공동기자회견' 을 열다. 민주당 이강래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등 정치인과 정동익 동아투위위원장 임성규민주노총위원장 등 단독국회와 악법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악법저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다.

이북의 <로동신문>은 이날자로<조선중앙통신> 25일 발표를 빌려 '6.25 미제반제투쟁의 달 평양시군중대회 '가 2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 통신 '은 ' 가장 악랄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씌웠으며 근 60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미쳐 날뛰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모여든 10만여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

들 차고 넘쳤다'고 소개하다. 또한 군중집회에서는 박영종 평양시인민위원회 제11부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노동자 최동철 승호구역협동농장 경영위원장 리화실 김일성종합대학학생 강석용 등 이 연설하였다고 하다.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백범 김구선생 서거 60주기 추모제준비위원회 주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립유공자 유족회 80여개의 단체 공동주관으로 '백범 김구선생서거 60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리다. 김유길 광복군동지회 명예회장의 대회사.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의 연대사 낭독 등이 있었고 이어 학술강연회에서는 서굉일국학연구소 소장이 '백범김구의 민족주의 고찰 이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고 2부 추모문화제에서는 이명옥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이사의 진혼무(살풀이) 이정민 한강수예술단 이사장의 천부경 춤, 계철화시인의 헌시 박노웅명창의 단가와 춘향민족아리랑 등이 공연하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다. 경찰은 구사대와 용역 진입으로 농성자들과의 충돌이 끝난 오후 5시 경 병력 투입을 결정후 본관 뒷편을 통해 용역 300여 명이 들어와 도장공장과 본관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용역과 구사대는 본관과 도장공장을 에워싸고 있다. 3,000여 구사대에 밀린 900여 노동자들과 가족은 도장공장과 본관에 있으며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결사투쟁을 다짐하고 있으며 도장공장과 본관을 중심으로 장기 농성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쇠파이프, 헬멧, 소화기, 그물망 등으로 무장한 용역들은 경찰이 물러나자 노조와 밤새 공방이 벌어지고 용역, 부상자 호송차량 운전자도 끌어내 집단 폭행하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은 뒷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사복경찰이 들어와 노조간부 등을 체포하다.

30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9년 6월 회원 월례강좌 '가 진행되다 이날 강좌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소장의 ' 올바른 한국사의 이해-식민사관과 노론 '주제로-' 중국동북공정의 이론적근거 " 한사군과 식민사관 " 삼국사기초기불신론 '과 ' 식민사학 " 국사교과서의 노론중심서술 " 정조독살설 '은 사료적 근거가 없는가 ' ' 현대의 과제 '등 순으로 상당한 사료적 근거로 역사비판을 발표하다. 회원들과 선생님들 40여명이 함께 하여 마친 다음 닭죽과 막걸리 등으로 푸짐한 뒤풀이를 하다.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에서 야4당과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 4대 종단이 모인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4대강 살리기 범국민대회' 가 열리다. 경찰은 10여 대의 차량과 수백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원천봉쇄한 하고 행사 전 엠프와 스피커 등 행사물품을 옮기려던 민주당 당직자 등 6명을 현장에서 강제 연행했고, 수 십여 명의 시민들을 끌어내며 강제로 연행하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추미애의원 등은 규탄발언을 하다.

31

지난 2000년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안영기선생님의 여든 번째 생일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생일상을 받았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북의 무소속 기관지 <통일신보>는 최근호(27일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투쟁을 영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어 값높은 생을 축복해주시였다" 고 보도했다. 신문은 "1929년 6월 19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노동자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공화국정권을 위해 손에 총을 잡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전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였고 그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된 그는 38년간 죽음의 감방에서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고문을 이겨내고 혁명전사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다" 고 하다.

이북의 무소속기관지<통일신보 >는 최근호(27일)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하겠다는 말과 관련 이는<흡수통일론>으로 망발이고 망언 '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이어' 이는 극도의 반공화국대결론이고 반통일론이자 북침전쟁론 '이라고 규정하며 ' 과연 자유민주주의체제론 통일이 가능한가 '고 묻고는 ' 결론부터 말하면 망상에 불과하다 '고 단정하다. 그 이유로 ' 지금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초보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마구 짓밟히고 있다 '면서 남조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이 아니라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 고 사람들을 죽음에로 몰아가는 <자유>이며 인간의 존엄이 돈에 팔리우는<자유>라고 혹평하다.

32

서포동 검찰청 앞에서 서울청년단체협의회 국가 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으로 '공안정국조성 김하안국가보안법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서총련의장을 지냈던 김하얀씨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의해 강제연행되어 조사 중이었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준)공동준비위원장 김하얀씨의 직징동료 신동훈씨 등이 지병을 앓고 있는 김하얀씨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중단을 촉구하다.

여의도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미디어행동 등 공동으로 '단독국회규탄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저기 1박2일 비상국민행동' 선포기자회견 '을 갖고 농성에 들어가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자리에서 비정규법언론악법 등 MB악법저지결의대회를 열고 1박2일 상경투쟁에 들어갔으며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소속회원과 대학생 농활대 등 오천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한미FTA저지.농업선진화분쇄.이명박정권심판전국농민대회' 를 열고 '이명박정권의 농민말살. 민주주의말살 국민말살정책을 규탄하고 하반기에 이명박심판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다. 대회를 마치고 노,농연대 1박2일 농성투쟁에 함께 했으며 저녁에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하다.

윌트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6일 육군사관학교 을지강당에서 열린 '군인과 리더쉽' 이란 특강에서 '확장억지력 '에는 미국의 핵우산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정규전력증강 그리고 그 능력의 향상과 MD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고 밝힌 것으로 이날 언론들이 보도하다. 미국은 02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확장억지력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에다 MD계획을 추가했지만 MD계획이 확장억지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3

용산 국방부 앞에서 91차 군축집회가 열리다. 부천 평통사 김현숙 사무국장 사회로 '국방개혁 대신 국방개악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는 주제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 서울평통사 황윤미 사무국장 사회진보연대 이유미 사무국장의 규탄발언과 김미선 전통무용가(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불림')가 상징의식으로 한반도평화를 소원하는 살풀이 춤 공연이 있었음 이어 주병준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의 발언과 모성룡 양심수후원회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 부천 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 서영선회장(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의견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하다.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민주노동당 김정동 비정규담당 노동국장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혐의로 강제연행하다. 또한 같은 시간 대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자본론 등 책 5권을 압수해가다

안경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는 10월29일까지의 임기 4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퇴의사를 밝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국가인권위에 대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정치적탄압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공격했으며 인수위 때부터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했다고 규탄하다.

미국이 필립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북제재전담기구를 국무부. 백악관국가안전보장기수. 국방부 재무부 관계자들을 출범시킨데 이어 30일에는 (현지시간) 이란에 있는 홍콩일렉트로닉스와 이북의 무역회사인 '남촌강' 에 대해 각각 미사일지원개발과 우라늄농축관련협의로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조치를 취하다.